

연구총서 03-03

「조선여성」 분석

임 순 희

통 일 연 구 원

「조선여성」 분석

◆
목 차

I. 서론	1
II. 여맹과 「조선여성」	3
1. 여맹 개관 — 3	
2. 「조선여성」의 특성과 기능 — 7	
III. 「조선여성」 구성의 특징	13
IV. 주제별 내용분석	25
1. 김일성·김정일의 업적 및 위대성 찬양 — 25	
가. 김일성 찬양 · 25	
나. 김정일 찬양 · 33	
2. 김정숙 찬양 및 우상화 — 51	
3. 사상교양 — 59	
4. 여맹 활동 및 모범 사례 — 64	
가. 여맹 활동 · 64	
나. 모범 사례 · 71	
5. 공산주의 도덕 — 74	
6. 일반상식 — 79	
가. 농·축산 및 의학·건강상식 · 79	
나. 과학·문화예술상식 · 80	

7. 남한 및 외국 실상 — 82	
가. 남한 실상 • 82	
나. 외국 실상 • 89	
V. 「조선녀성」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	93
1. 시기별 변화 양상 — 93	
2. 내용상의 특징 — 98	
VI. 결론	106
참고문헌	108

◆

표 · 그림목차

- <그림 1> 「조선여성」 2003년 1호 1면의 사진 “모두다 새해전투에로” — 15
- <그림 2> 「조선여성」 2003년 10호 표지 2면의 노래 “장군님께 영광을” — 16
- <그림 3> 「조선여성」 2003년 10호 표지 3면의 선전화 “군대는 곧 당, 국가, 인민이다” — 17
- <그림 4> 「조선여성」 1991년 6호 표지 4면의 “조선화<<림수경의 법정투쟁>>” — 18

1. 서론

남북한 사회통합의 주요 전제는 남북한간 이질성 극복 및 동질화라고 할 때,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 선행조건은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내지 인식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이해는 집단별·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심층이해를 도모해야 하며,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래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추세를 주목할 때,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집단별·계층별 심층이해는 그 의의와 필요성을 더한다.

북한주민의 생활에 대한 집단별·계층별 이해에 있어 특히 북한 여성에 대한 심층이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성이 북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북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이해는 전반적인 북한주민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수월하게 할 것이며, 이는 북한 여성이 가정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북한 연구 동향에 있어 북한 여성에 대한 연구는 북한 연구의 타 분야에 비해 부진한 편이며 기초자료 축적도 미흡한 실태이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북한 여성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 작업의 일환으로써 「조선여성」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북한의 유일한 여성잡지인 「조선여성」은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선민주녀성동맹'(이하 여맹)의 기관지로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상 및 일반교양서이며 여성생활의 지침서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조선여성」의 분석 결과

2 「조선여성」 분석

는 당의 여성정책 및 여성 관련 공식가치지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북한 여성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북한 여성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남북한 여성을 비교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여성」은 1946년 9월에 첫 호가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된 「조선여성」은 현재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1979년 1호부터 2003년 10호까지이다.¹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 입수의 문제로 인해 이 논문이 지니는 기본적인 한계는 「조선여성」 창간호부터 2003년 10호 현재까지의 내용분석에 따르는 시기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9년 1호부터 2003년 10호까지의 내용분석에 있어서도 몇 가지의 주목할 만한 시기별 변화양상이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1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에 소장된 「조선여성」을 입수, 분석하였다.

II. 여맹과 「조선녀성」

1. 여맹 개관

「조선녀성」은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인 여맹의 기관 잡지이다. 따라서 「조선녀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여맹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근로단체는 근로자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며 당을 옹호보위하고 방조하는 당의 외곽단체이다. 또한 근로단체는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로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균중을 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 정책 관철에로 조직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² 다시 말해서 근로단체는 당에 의하여 조직되고 당의 영도 밑에 자기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동맹원들과의 사업을 하는 정치조직이며, “근로단체조직들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로서 균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은 근로단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련계를 실현하고 균중속에서 핵심을 키워 자기 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해나간다”³는 것이다.

북한 문헌을 통해보면 근로단체의 주요 임무와 과업은 사상교양사업, 동맹대렬의 정치사상적 정비 강화, 동맹조직생활 강화, 그리고 노동계급과 동맹원들을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적극 조직 동원하는 것 등 4가지로 집약

2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3」(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 427.

3 김정일,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00-201.

4 「조선녀성」 분석

되며, 이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사상교양사업이다. 또한 북한은 근로단체들이 이와 같은 임무 및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당적지도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북한의 근로단체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을 비롯해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맹은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녀성동맹’으로 창립되었으며, 1951년 1월 20일 ‘남북조선의 여성동맹이 통합되면서 ‘조선민주녀성동맹’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맹 역시 다른 근로단체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이 창건한 “우리 나라 여성들의 대중적인 정치조직”이며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당과 여성들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이고 “녀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상교양단체이다.”⁴ 또한 여맹의 주요 임무 및 과업에 있어 가장 중점적인 것도 다른 근로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상교양사업이며, 사상교양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맹원들을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녀성」은,

녀맹이 녀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단체라는 것은 사상교양사업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녀맹원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그들의 사상의식을 적극 발동하는 방법으로 동맹건설활동을 벌려나가는 대중단체라는 것을 말한다. 녀맹이 녀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단체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녀맹이 광범한 녀맹원들과의 사업을 하는 대중정치조직이기 때문이다. …녀맹원들과의 사업은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

4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7」(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 671.

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으로 된다. …녀맹은 사상교양 사업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녀맹원들은 사상교양사업의 중요성을 똑똑히 알고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된 충실성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대를 이어 받들어나기야 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하여야 한다.⁵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0년도에 발간된 「조선대백과사전」에서도 여맹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모든 여맹원들을 김정일에게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참된 충신으로 키우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 따라 녀맹은 모든 녀맹원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무한히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참된 충신으로 키우고 동맹안에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기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고 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모든 녀맹원들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시켜 우리 혁명대오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⁶

라고 한다. 또한 여맹은 사상교양사업을 통한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여

5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녀맹조직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 「조선녀성」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92. 5), pp. 30-31.

6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7」, p. 670.

맹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이 외에도 여맹은 다른 근로단체와 마찬가지로 동맹대열의 정치사상적 정비 강화, 동맹조직생활 강화, 노동계급과 동맹원들을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적극 조직 동원 등의 임무 및 과업을 수행하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며 나아가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⁷한다.

북한은 여맹이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숙의 현명한 영도와 보살핌 속에서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갓 창립된 녀성동맹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며, …녀성들의 문화수준과 정치사상수준을 높여나갔으며 그들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에 적극 조직동원하였다.”⁸라고 하여 김정숙의 역할 및 업적을 크게 강조한다.⁹ 여맹과 관련해 김정숙의 역할 및 업적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후계자 김정일이 공식화 된 때를 전후해서이며, 그 이후로 여맹과 관련한 김정숙의 업적은 「조선녀성」을 통해 꾸준히 소개 선전되고 있다. 북한은 특히 김정숙이 여맹 기관지인 「조선녀성」의 창간을 직접 지도하였으며, 여맹조직들에 대해서

7 위의 책.

8 위의 책.

9 이는 김정일 후계체제가 공고해짐에 따라 여맹과 관련해 강반석보다는 김정숙의 역할 및 업적을 보다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말해 주는 바, 1983년에 발간된 「백과전서 4」에서는 여맹 결성 및 발전과 관련해 “강반석녀사께서 1926년 12월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녀성조직인 반일부녀회를 조직하신 때로부터 조선민주녀성운동의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라고 밝히고 여맹과 관련한 강반석의 역할 및 업적을 강조하였다.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4」(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p. 519 참조.

는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할 것, 모든 여성들이 자녀교양을 잘하도록 지도할 것, 여성들의 문맹퇴치와 미신타파를 위한 계몽사업을 강화할 것 등을 강조하였고 탁아소사업에도 주력하였다고 한다.

2. 「조선여성」의 특성과 기능

「조선여성」은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 잡지¹⁰로서 1946년 9월 6일에 창간되어 2003년 10월 현재 ‘주체92(2003)년 제10호(투게제545호)’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여성」은 1982년 6호까지는 월간으로 발행되었으나 그 후로부터 2000년 6호까지는 격월간으로 발행되었으며 2001년 1호부터 다시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한 1979년 1호부터 1982년 6호까지의 「조선여성」은 각 호 56쪽으로 발행되었으나 그 후로부터 2002년 12호까지는 각 호 40쪽으로 축소하여 발행되었으며 2003년 1호부터 다시 각 호 56쪽의 4×6배판 월간으로 근로단 체출판사에서 발행되고 있다.

여맹원들을 비롯해 전체 여성들을 독자대상으로 하는 「조선여성」은 북한 잡지의 일반적 성격 및 기능과 함께 여성잡지로서의 특성과 기능을 지니고 있는 바, 먼저 북한 잡지의 일반적 성격 및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

10 북한의 잡지는 대부분이 기관 잡지로 발행된다. 예를 들면 「조선문학」과 「청년문학」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 잡지이며, 「근로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기관 잡지이고, 「청년생활」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 잡지로 발행된다. 일반대중교양잡지로는 유일하게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천리마편집위원회’가 발행하는 「천리마」가 있으나 잡지의 성격 및 기능에 있어서는 기관 잡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과 같다.

첫째, 모든 잡지는 공통적인 기본 편집 방향 내지 지침에 따라 발행된다.

북한은 “우리나라 잡지들은 수령님과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당의 방침을 체계적으로 해설 선전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하여 일반화하며 근로자들의 정치이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 및 일반상식과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편집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한 3대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 한다.”¹¹라고 하여 모든 잡지에 공통적으로 편집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둘째, 북한의 잡지는 독자인 대중의 여론에 대해 폐쇄적이다.

북한의 잡지는 당 및 해당기관이 하달한 편집의 기본 방향 및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제작, 배포될 뿐 잡지 편집과 관련해 독자인 대중의 여론을 수용하기보다는 배제하는 편이다.

셋째, 북한의 잡지는 북한 주민의 정치사회화의 주요 매체로서 지배가치의 정당성 지지와 대중선동 및 대중동원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와 같은 기능은 위에서 밝힌 잡지 편집의 기본 방향 내지 지침에서 뿐만 아니라 출판보도물의 역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바 북한은,

신문, 통신,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은 광범한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우리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입니다.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가 대중속에 침투되고 국내외정세와 사회

11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4」, p. 219.

주요건설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출판보도물이 없이는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잘할수 없습니다.¹²

라고 강조한다.

넷째, 북한의 잡지는 정치사상교양의 수단으로서 가능하다.

이는 위에서와 같은 출판보도물의 역할에서 뿐만 아니라 출판보도물을 담당하는 기자의 의의 및 역할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사회 혁명과 건설에서 선진사상의 옹호자이며 전파자이며 사회여론의 대변자이며 조직자”인 “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 수령님과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리론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친위대, 근위대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몸바쳐 싸워나가는 당사상전선의 주공을 담당한 주력부대이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널리 해설선전하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정치활동가이다.”¹³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잡지는 대부분이 기관 잡지로 발행되며 기관 잡지를 발행하는 동맹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사상교양사업이라고 할 때, 북한의 잡지가 정치사상교양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당위적인 것이기도 하다.

위에서와 같은 북한 잡지의 일반적 성격 및 기능과 함께 「조선녀성」이 지니고 있는 여성잡지로서의 특성 및 기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12 김정일, “당대표사회결정관철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지”,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67.

13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1」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p. 670.

첫째, 「조선여성」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정치잡지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대중교양종합잡지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이는 「조선여성」 편집의 기본 방향 및 지침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¹⁴ 먼저 「조선여성」은 대중정치잡지의 성격에 맞게 여성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고전적로작’들과 여성운동 발전 및 여성문제 해결에 관한 당의 방침들을 해설 선전하는 글들을 비롯해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관련 자료들을 다양하게 편집해야 한다. 또한 「조선여성」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당과 수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해 나가고 있는 여성들의 긍정적 모범을 널리 소개 선전하며, 이 외에도 여맹조직들의 사업경험을 일반화하는 글들과 여러 가지 과학문화상식들, 문예작품들, 남조선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자료들도 편집해야 한다.

둘째, 「조선여성」은 편집 내용의 구성상으로 보아 대중교양종합잡지로 분류되는 「천리마」¹⁵와 유사하나 광범한 대중을 독자대상으로 하는 「천리마」와는 달리 여맹의 기관지로서 여맹원을 비롯해 전체 여성을 독자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편집되는 내용들 가운데 여맹조직 및 여맹원 관련 글과 여성 관련 상식 및 자료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셋째, 「조선여성」은 다른 잡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여성의 정치사

14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7」, p. 567.

15 1959년 1월 창간된 「천리마」는 4×6배판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잡지에는 김일성·김정일 관련 글을 비롯하여 사상교양자료, 일반상식, 문예작품 등 「조선여성」에 수록된 글들과 거의 같은 내용의 글들이 게재된다. 「천리마」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 청소년 등 광범한 대중을 독자대상으로 한다.

회화의 주요 매체로서 지배가치의 정당성 지지와 대중선동 및 대중동원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정치사상교양의 수단으로서도 크게 활용된다. 이와 같은 기능은 「조선여성」의 기본사명에서 잘 나타나는 바 「조선여성」은,

여성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충신으로 준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¹⁶

라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조선여성」의 기능은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서 집중적으로 구현 되는 바 「조선여성」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성출판물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기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출판보도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당적출판보도물로서의 여성출판물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우리 여성출판물이 여성대중의 참다운 교양자가 되도록 할것이다.¹⁷

16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7」, p. 567.

17 「조선여성」(1996. 5), pp. 20-21.

라고 밝히고 있다.

넷째, 「조선녀성」은 북한 여성들의 계몽과 발전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조선녀성」 창간에 즈음해 김일성은 “잡지 <조선녀성>은 우리 녀성들의 계몽과 발전을 위한 친절하고도 올바른 지침”¹⁸이 되리라고 믿는다는 내용의 창간 축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선녀성」은 일반 상식 및 공산주의 도덕 해설, 문예작품 등을 수록함으로써 사상교양 외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계몽과 교양에도 비중을 두어 잡지를 편집한다.

18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7」, p. 566.

III. 「조선여성」 구성의 특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정치잡지이면서 대중교양잡지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조선여성」은 다음과 같은 구성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i)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등에 관한 글들은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김일성의 업적 및 위대성을 찬양하고 그를 추모하는 글, 김정일의 업적 및 위대성을 찬양하는 글, 김일성·김정일의 노작을 해설 선전하는 글, 김정숙의 업적과 풍모를 찬양하며 우상화하는 글 등은 대부분이 잡지의 앞쪽에 수록되며 특정 난이 고정적으로 편집되어 큰 제목 아래 여러 가지의 작은 제목들로 수편의 글이 게재된다.

(ii) 표지는 앞 뒤 각각 두 면씩 총 네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짜여져 있다.

표지 1면은 주로 직업장에서 일하는 일반 여성노동자의 사진, 또는 훈장을 단 여성들의 사진,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있는 사진, 또는 여성들과 군인들이 함께 있는 사진 등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목차 끝 부분에 “정보산업시대의 주인으로”, “우리 장군님 내세워주신 군인가정” 등과 같이 사진 설명이 되어 있다. 2면에는 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숙 찬양, 사회주의 제도 찬양,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 다짐, 조국에 함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래가 실려 있으며, 때로는 김일성·김정일 찬양시가 수록되기도 한다. 3면

에는 주로 그림이 실려 있다. 그림의 내용은 주로 반지주(反地主), 반제(反帝)의식 고취를 위한 것들과, 사회주의 건설 선동, 또는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강화 등을 위한 것들이다. 그림의 제목은 “원한의 소방울”, “다시 볼수 없는 동생”, “전 신천군 화산리민청위원장이었던 양용녀의 머리에 못을 박아 학살하는 미제승냥이들”, “〈90년대속도〉 앞으로!”, “선군혁명령도를 받들고 새 세기를 빛내이자!” 등과 같이 구체적이며 자극적, 선동적이다. 때로는 각 부문에서의 ‘혁신자’ 또는 여맹활동 사진이 실리기도 하나, 최근에는 주로 반미(反美)의식 고취 또는 당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선전화가 많은 편이다. 4면은 북한의 명승지나 평양거리 등을 찍은 사진 또는 조선화, 선전화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991년 6호로 발간된 「조선녀성」 4면에 실린 조선화, “《림수경의 법정투쟁》”이다. 이 그림에서는 불법적으로 방북해 법정에선 임수경이 방청객들의 박수갈채와 꽃다발 세례를 받는 “통일의 꽃”으로 그려져 있으며, 반쪽 이상의 지면에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그림1> 「조선여성」 2003년 1호 1면의 사진 “모두다 새해전투어로”



<그림> 「조선여성」 2003년 10호 표지 3면의 선전화 “군대는 곧 당, 국가, 인민이다”



(iii) 「조선여성」에 수록된 글들은 대부분이 김일성·김정일의 업적 및 위대성에 대한 찬양,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의 생일이 있는 달에 발간되는 「조선여성」은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때로는 ‘특간호’로 발간되기도 한다. 한 예로 1982년 4월의 ‘특간호’는 김일성 찬양 및 우상화 관련 글이 총 39쪽에 달하며, 이를 포함해 김정일을 의미하는 ‘당중앙’ 관련 글, 김정숙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관한 글,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에 관한 글, 김일성을 형상한 문학작품인 “총서《불멸의 력사》” 해설 선전 등 총 56쪽 가운데 51쪽이 김일성과 그의 가계에 관련된 글들로 채워져 있다.

(iv)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 강반석과 조부모인 김보현, 리보익, 삼촌인 김형권, 동생 김철주, 김일성의 부인이며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 등 김일성 가계 찬양 및 우상화 관련 글이 매호마다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김정숙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에 관한 글은 그들의 생일 및 사망일을 기념해서, 또는 그들이 주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서 당월 호에 한 두 편씩 실리나, 김정숙에 관한 글은 1979년 1호부터 2003년 10호 현재까지 매호마다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를 전후해서 김정숙 찬양 및 우상화 관련 글이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많아졌으며, 그 후로 점차 지면 할애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김정숙 다음으로는 강반석과 김형직, 그리고 할머니인 리보익에 관한 글이 많다. 김정숙에 관한 글에 비해 강반석에 관한 글은 상대적

으로 적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내용도 ‘반일부녀회’ 결성, 강반석 사망일 기념 등과 관련한 글이 한 두 편씩 실리는 정도이다. 김일성 가계를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글과 관련해 특이한 것은 김일성의 할머니 리보익을 찬양하는 글이 의외로 적지 않게 게재되는 편이며, 그 내용도 강반석에 대한 찬양과 거의 같다고 하는 것이다. 「조선녀성」에 수록된 리보익에 관한 글들의 주요 내용은 리보익이 농사일을 하면서도 큰 가정의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누구보다 고생이 많았으나, “오히려 할머니께서는 고되고 어려운 가정살림살이를 자신의 한몸으로 치르어나가는 것을 김보현 할아버님의 일손을 돕는 것으로, 자제분들의 앞날을 위한 보람있는 일로 여기시였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모진 가난과 고역 속에서도 민족의 절개를 지켜 굴함없이 굳세게 사시였다. …리보익할머니께서 언제나 로동을 사랑하시고 일손을 놓지 않으신 근면한 그 성품은 오늘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의 가슴속에 숭고한 모범으로 깊이 간직되어있다.”¹⁹라고 하는 것이다.

(v)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글 다음으로 빈도 높게 게재되는 글은 사상교양 관련 자료를 해설 선전하는 내용의 글이다.

「조선녀성」에 수록된 사상교양 관련 자료의 주요 내용은 주체사상교양,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 등에 관한 것이며, 특히 주체사상교양,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계급교양 등에 관한 글들이 비중 있게 수록되어 있다.

또한 공산주의도덕교양 관련 글은 호를 거듭할수록 점차 지면 할애가

19 「조선녀성」(1987. 3), p. 15.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vi) 각 호마다 화보가 적게는 3~4쪽, 많게는 6~8쪽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게재되는 빈도에 따라 순서대로 그 내용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과 관련된 사진 또는 그림들이다. 이는 주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대한 김일성의 현지지도와 살림집 방문 현장 사진, 백두산, 농촌들판, 서재 등을 배경으로 하여 김일성의 '위대성'을 형상한 사진 또는 그림, 김일성이 모범 근로여성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김일성 혁명사적지 사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사진 등이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로는 김일성의 생가 만경대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관련 사진들이 주로 게재되어 있다.

둘째,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있는 사진 또는 그림들이다. 이는 주로 둘이 산책하거나 사업을 토의하는 모습, 주석단에서 군중들의 환호에 답하는 모습, 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등 사업현장에 나가 현지지도 하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그림들은 1980년 10월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로 빈도 높게 게재되었다. 또한 사진이나 그림의 제목도 "평양시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²⁰ 등과 같이 하여 후계자 김정일의 지위와 권위를 공고히 하는 데 사진, 또는 그림 게재의 의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김정일 관련 사진들이다. 1979년 1호부터 2003년 10호까지의 「

20 「조선여성」(1988. 2), 화보 참조

조선여성」에 김일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제외하고 김정일이 단독으로 찍은 사진이 게재된 것은 한 번에 불과했다. 김정일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 사진이 특히 김정일의 후계자 공식선언 이후로 빈도 높게 게재되었으며,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김정일의 탄생을 축복하고 후계자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문구들을 새겨 넣은 것이라고 하는 ‘구나무’들 사진이 여러 차례 수록되었다.

넷째, 김정숙과 관련한 사진들이다. 김정숙과 관련해서는 함경북도 회령의 김정숙생가와 회령군, 선봉군, 경성군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김정숙혁명사적지 사진이 많은 편이며, 그의 초상화와 전투장면을 담은 그림 등이 수록되어 있다. 김정숙 관련 사진은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래 매우 빈도 높게 수록되고 있다.

다섯째, 공장, 기업소 등 생산현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사진, 여맹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인 일군과 여맹원들, ‘영예의 혁신자들’, 모범 여맹초급단체들에 관한 사진들이다. 1990년대 후반 들어 김정일이 선군혁명영도와 선군정치를 주창한 이후로는 특히 여맹초급단체와 여맹원들의 인민군대 원호활동 관련 사진이 자주 실리는 편이다. 또한 1998년에 개최된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다산이 장려된 이후로 네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범 가정을 소개하는 사진이 역시 빈도 높게 게재되고 있다. 이른바 ‘공산주의적 미풍’ 발양을 강조함에 따라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집, 자식 없는 노인들을 모시고 사는 집 등 모범가정을 소개 선전하는 사진들도 많아지는 경향이며, 집짐승 기르기를 국가시책으로 장려함에 따라 집짐승 잘 기르는 집을 소개 선전하는 사진들도 자주 수록되고 있다.

여섯째, 김일성과 김정일을 흠송,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외국인들의 사진이다. 이는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이 들어 있는 달에 발

간되는 잡지에 수록된다.

일곱째, 사회주의제도 및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사진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탁아소, 유치원 등에서의 어린이들, 개선문, 주체사상탑 등과 같은 기념비적 대건축물, 평양산원, 창광원 등 주요 주민복지시설, 인민군대 열병식, 평양의 주요 거리 등을 담은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여성」 화보에는 위의 내용들 외에도 신천군의 ‘전쟁박물관’에 전시된 “미제 침략” 관련 자료와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남한과 관련해서는 1990년대에 개최된 수차례의 범민족대회와 2001년 민족통일대추전 관련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남한 관련 화보를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984년 여름 남한의 수해 당시 “뜨겁게 굶어치는 혈육의 정: 공화국 북반부인민들이 정성껏 마련하여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는 구호물자”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사진이다.

(vii) 「조선여성」의 구성상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여맹조직 활동 및 모범 여맹원 활동을 소개, 선전하는 글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선여성」은 매호마다 지역 단위에 따라 조직되는 각 시(구역)·군 여맹위원회와 동(리)초급여맹위원회 활동, 생산 단위에 따라 조직되는 공장·기업소 등의 초급여맹위원회 활동, 그리고 이들 단위 여맹위원회의 기초조직인 각 초급단체위원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 선전한다. 또한 모범적인 여맹조직과 여맹원의 활동사례를 소개 선전하는 글들도 다양하게 게재하며 모범 여성노동자, 여성과학자 등을 소개 선전하는 글들도 수록한다.

(viii)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강화와 건설현장에 대한 노력지원

을 선동하는 글들이 ‘선동문’이라는 특정 난에 게재되거나 또는 다양한 제목들로 게재된다.

예를 들면, “우리여성들은 200일전투에서 높은 충성심을 발휘하자”, “녀맹원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자” 등이 있다.

(ix) 농·축산, 의학·건강, 과학·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관한 일반 상식이 다양하게 수록되며, 최근에는 특히 여성 및 어린이 관련 의학·건강 상식에 대한 해설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다.

(x) 남한 및 외국 실상을 해설하는 난이 대부분 잡지의 뒤쪽에 고정적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지주와 자본가를 비난하는 글도 대개는 잡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남한과 미국, 일본 등에 대한 글은 비난일변도의 내용이나 이에 반해 제3세계국가 내지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글은 우호적인 내용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1990년대 이래 남한 실상에 대한 글들은 점차 비난의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며 지면 할애에 있어서도 축소되는 추세이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비난성의 글은 양적으로 다소 줄어든 편이나 질적으로는 변화가 없으며 2002년 말 북한 핵문제가 제기된 이래 특히 미국에 대한 비난은 그 강도를 더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IV. 주제별 내용분석

1. 김일성·김정일의 업적 및 위대성 찬양

가. 김일성 찬양

1979년 1호부터 2003년 10호 현재까지 「조선녀성」은 김정일의 생일이 있는 2월에 발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호마다 대체적으로 김일성의 업적 및 위대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첫 번째로 게재하고 있다.²¹ 「조선녀성」 창간호의 맨 앞에도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김일성의 부인이며 ‘충직한 친위전사’라고 하는 김정숙의 제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²²

김일성 생전에는 “위대한 수령,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사랑의 일지”, “우리 수령님과 여성들”, “녀성해방위업을 위하여”, “인류의 위대한 태양”, “불멸의 역사를 더듬어” 등의 큰 제목 아래 다양한 작은 제목들로 김일성의 업적과 위대성을 찬양하는 글들이 게재되었으며, 사후에는 “영원한 태양”, “세기의 위인, 불멸의 역사”, “회고록을 펼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한 우리 수령”, “태양은 영원히 빛난다”,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리” 등의 큰 제목 아래 여러 가지 작은 제목들로 김일성을 추모하며 그의 업적과 위대성을 찬양하는 글

21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후계자 김정일이 공식화되는 때를 전후해서는 김정일 찬양 및 우상화 관련 글이 맨 앞부분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22 「조선녀성」(1996. 5), p. 19.

들이 수편씩 게재되고 있다. 「조선여성」은 목차 다음에 특정 주제와 관련한 김일성의 교시를 게재하거나 그의 노작에 대한 해설 선전을 통해 ‘위대한 사상이론가’, ‘위대한 정치적 영도자’로서의 김일성의 위대성을 찬양하며 김일성을 찬양한 노래, 국내외의 시, 김일성의 위대성을 형상한 ‘수령형상창조’ 단편소설 작품 등을 게재하기도 한다. 또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통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도 하는 바, 예를 들면 “혁명설화” 또는 “백두산전설”이라는 난에서는 “천기를 내다보시다”, “김일성장군님은 천지만물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등의 작은 제목으로 김일성의神通력을 과시하고 찬양하는 글들을 게재하였다.

「조선여성」에서는 주로 항일유격전 회고와 현지도도 관련 글을 통해 김일성의 업적 및 위대성을 찬양하며, 특히 현지도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였으며 인민들을 찾아 현지도도의 길을 걸으시면서 혁명활동을 계속하시고 빛나는 생애를 총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를 해방하시고 조국땅에 개선하시여 건당, 건국, 건군 위업수행에 분망하시였던 나날 그리운 고향집에도 들리지 않으시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신 그날로부터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춘 1994년 7월 8일까지 1만 7,800여일의 장구한 기간 1만 8,000여개 단위들을 현지도도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멀고 험한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명절날, 휴식일, 자신의 생신날마저도 현지도도로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승리한후의 첫 생신날인 1954년 4월 15일도 어느 한 농촌마을에 대한 현지도도로 보내시였다.”²³

김일성 생전에 발간된 「조선녀성」에서는 김일성을 “위대한 사상의 창시자”,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강철의 령장”,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령도자”, “인민의 어버이” 등으로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에는 이에 더해 김일성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서 숭양하고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주체1(1912)년은 김일성민족, 태양민족의 원년이며 새로운 사회주의조선의 원년, 인류력사상 가장 높고 빛나는 영원불멸의 주체시대, 자주시대의 위대한 원년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으로부터 우리 조선의 새 력사, 우리 민족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다. …조선민족의 원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시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민족, 태양민족이다.”²⁴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래 김정일의 업적과 위대성을 찬양하는 글들에 비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들이 상대적으로 점차 적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들의 대부분은 그 내용에 있어 김일성의 업적을 회고하며 그를 추모하는 한편 오직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는 것이 거의 공식화되어 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에도 그의 생일이 있는 달에 발간되는 「조선녀성」은 김일성 관련 글들을 게재하는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한 예로 2001년 4월호는 회보를 포함해 총 40쪽 가운데 16쪽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들로 채워져

2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한 우리 수령, 인민을 위한 억만리”, 「조선녀성」 (1996. 3), p. 3.

24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라: 태양의 력사는 영원히 흐른다”, 「조선녀성」 (1998. 2), p. 11.

있다.

「조선녀성」에서는 김일성 찬양과 관련해 특히 그의 ‘위대한 인간적 품모’를 찬양한 글과 여성해방 및 여성의 지위향상 관련 업적을 찬양한 글, ‘남조선 인민’들의 흠숭과 찬양에 관한 글들을 비중 있게 싣고 있다.²⁵

(i) ‘위대한 인간적 품모’ 찬양

김일성의 ‘위대한 인간적 품모’를 찬양하는 글들은 김일성이 여성들에 대해 따뜻한 배려와 은정을 베푼 일화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으며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동안 고정적으로 편집되었던 “위대한 사랑의 일지”란에서는 현지도 등 김일성의 행적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 김일성의 소탈하고 자애로운 인간적 품모를 찬양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일성은 일반 노동자의 집에 들러 메밀망질도 하고, 인민들과 꼭 같이 수수한 옷을 입고, 나라 일에 바쁜 중에도 은인 찾기를 마음 급해 하고, 아이들 옷의 단추를 단단히 달아주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그런가 하면 한 발전소사업 현지도 후 수령을 환영하는 연회장에 여성일군이 한 명도 보이지 않자 굳이 발전소 여맹위원장을 데려올 것을 지시하고는 올 때까지 연회시작을 미루는 등 소탈하고 자상하며 자애로운 인간적 품모를 보여준다.²⁶ 또한 김일성은 월남자 가족도 따뜻하게 배려하며 은정을 베푼다. 월

25 김일성을 찬양한 글들은 위의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로 그 주제를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조선녀성」에서는 항일유격전 당시의 숭한 일화와 관련자들이 회고하는 글들을 통해 김일성을 탁월한 전략가, 강철의 영장 등으로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1979년 1호부터 2003년 10호까지의 「조선녀성」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주제라고 평가되는 것만을 논하기로 한다.

남자 가족임을 숨기고 살던 한 여인이 김일성에게 자신의 남편이 월남했음을 울며 고백하자 김일성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그를 책망할 대신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넓은 품에 따뜻이 안아주시며” 못내 가슴 아파 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 그 여인을 따뜻이 보살펴 주고 그녀에게 조선노동당원의 영예까지 안겨준다.²⁷ 그런가 하면 김일성은 사전 통보도 없이 새 집들이를 한 가정을 방문하여 방바닥을 짚어 보고, 옷장위치를 바로 잡아주며, 미닫이의 규격을 정해주고, 부엌과 위생실(화장실)을 돌아보는 등 친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일화²⁸는 유사하게 여러 차례 게재된 내용이다. 김일성의 ‘위대한 인간적 풍모’를 찬양한 글들 가운데는 특히 김일성이 어린이와 어머니들에 대해 베푼 은정 및 배려에 관한 내용들도 적지 않다.

(ii) 여성해방 및 여성의 지위 향상 관련 업적 찬양

「조선녀성」을 통해 보면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김일성은 독창적인 여성해방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고 현명하게 영도한 여성해방의 위대한 은인이며 은혜로운 태양이다. 또한 김일성은 여성들에게 나라의 주인이라는 높은 지위와 혁명가의 고귀한 삶을 주고, 여성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워준 지애로운 아버지이며 여맹의 창건자, 영도자이기도 하다. 「조선녀성」에는 김일성이 여성의 지위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다양한 일화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

26 “위대한 사랑의 일지”, 「조선녀성」 (1979. 1~3, 6) 참조

27 “위대한 사랑의 일지”, 「조선녀성」 (1980. 5), p. 11.

28 “영원한 사랑 속에”, 「조선녀성」 (1998. 1), p. 11.

면, 한 과수종합농장을 찾아 노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김일성은 그 자리에 여성이 한 명밖에 없는 것을 보고 초급일군들을 남자들로만 꾸린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농사는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잘한다. 그러니 관리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을 꾸리는데 남자들과 여성들의 비율을 잘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²⁹ 또한 김일성은 “우리 일군들속에는 아직도 여성들을 업신여기는 낡은 사상관점과 그릇된 사업태도가 남아있다. …여성들을 무시하고 여성들의 힘을 믿지 않으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앞으로 여성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여 쓰며 모든 사업에서 여성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한다. 여성들을 꽃이라고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혁명의 꽃을 피워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여성 인력 존중과 활용도 제고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음을 소개 선전하고 있다.³⁰

김일성의 여맹 관련 업적에 대해서도 「조선여성」은 김일성이 “지난날 봉건적구속과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인신적으로 2중3중의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인간이하의 고통속에 헤매이던 우리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큰힘으로 보시고 하나의 정치조직에 묶어세워주신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였다.”³¹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일성은 여맹 기관지의 제호를 “은 세상에 이름을 떨칠 조선여성들의 출판물”³²이라는 뜻에서 「조선여성」이라고 달

29 “크나큰 믿음을 안고 삽니다”, 「조선여성」 (1996. 3), pp. 6-7.

30 「조선여성」 (1996. 3), p. 7.

3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성들의 믿음직한 정치조직을 결성하시여”, 「조선여성」 (1996. 2), p. 11.

32 “태양은 영원히 빛난다. 여성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시여”, 「조선여성」

이주었다고 한다.

「조선여성」은 위에서와 같은 김일성의 여성해방 및 여성의 지위향상 관련 업적에 대해 매호마다 여러 편에 달하는 찬양과 감사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김일성 생전에는 그 내용들이 “수령님께서는 이르시는곳마다, 찾으시는곳마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들에게 지워지는 고되고 힘든 일을 덜어주겠는가 넘려하시며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다.”³³, 또는 “번영하는 주체조국의 품속에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복된 삶을 누리 고있는 우리 여성들은 여성해방위업을 위하여 끝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덕을 길이길이 전하며 대를 이어 충성과 효성을 다해갈 것이다.”³⁴라는 말들로 전형화 되어 있다. 김일성 사후에는 거의 대개가 “우리 여성들과 녀맹원들은 여성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기승 깊히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여성동맹을 명실공히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충성의 대오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³⁵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2003. 3), p. 4.

33 「조선여성」(1989. 4), p. 4.

34 “여성해방위업을 위하여 남녀평등의 권리를 안겨주시여”, 「조선여성」(1991. 4), p. 7.

3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여성들을 민주주의 기발이래 묶어 세우시여”, 「조선여성」(2001. 11), p. 5.

(iii) ‘남조선인민’들의 흠송과 찬양

「조선녀성」에 수록된 글들 가운데는 “남녘동포들을 생각하는 수령”을 형상한 글들이 많다. “남녘동포들을 생각하는 수령”에 대해 쓴 대부분의 글들은 그 누구도 김일성이 “미제의 군화밑에 짓밟혀 몸부림치는 나라의 절반땅과 힐벗고 굶주리는 사랑하는 겨레들을 두고 얼마나 마음쓰고 계시는가를 모를 것이다”³⁶라고 한다. 또한 「조선녀성」에는 이와 같은 수령을 남조선인민들이 끝없이 흠송 찬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글들은 한결같이 남조선 어디에서 사는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김일성을 흠송 찬양했다는 식으로 공식화되어 있다.

서울에 사는 가수 최희영은 지난해 4월 동료들앞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면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흠모의 마음을 담아 불렀다. 이에 감동된 동료 가수들은 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어서 빨리 분단의 장벽이 무너져 우리 연예인들도 자유로이 남북을 오가며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부를 날이 와야 한다.》고 말하였다. …몇해전 8월 15일 광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최 아무개 교원은 학생들을 데리고 무등산으로 올라갔다. 그는 학생들에게 《오늘은 광복의 날이다. 김일성장군님은 광복의 은인이다. 이 뜻깊은 날에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렀다. 이날 학생들은 그토록 부르고 싶어하면서도 마음놓고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마음까지 합쳐, 자주,

36 “위대한 수령, 자애로운 아버지: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는 뜨거운 마음”, 「조선녀성」 (1984. 6), p. 4.

민주, 통일의 성전에 한몸바친 선배들의 뒤통까지 합쳐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껏 불렀다.”³⁷

나. 김정일 찬양

1979년 1호부터 2003년 10호 현재까지 「조선녀성」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들과 함께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들을 가장 비중 있게 수록하고 있다. 김정일의 업적 및 위대성을 찬양하는 글들은 특히 1980년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때를 전후하여 급증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지면 할애가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지하듯이 김정일의 권력계승을 위한 사전작업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김정일은 ‘당중앙’이라는 신비화된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에 따라 한동안 김정일은 ‘당중앙’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한의 간행물에 등장하였으며 잡지 「조선녀성」도 예외가 아니다.

「조선녀성」 1980년 1호에는 “당의 문예방침”, “당의 세심한 지도”, “당의 현명한 령도” 등으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들이 게재되어 있으며 같은 해 2호의 표지 2면에는 “위대한 당을 생각할 때”라는 제목으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37 “남녘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조선녀성」(1992), p. 22.

<상략>

빛나는 해와 달 흘러흐르고
낮에 밤을 이어 새벽이 와도
당중앙의 창문기에 비치는 불빛
그 불빛 승엄하게 우리를 때
눈덮인 백두의 밀영이 떠올라

<중략>

우리 바치는 평범한 로력도
위대한 수령님의 기쁨 되게 하고
우리 흘리는 작은 땀방울도
주체의 위업을 빛내이게 하는
은혜로운 향도의 해발이여

<중략>

당을 생각할 때
기슴속엔 불타는 충성의 한마음
해와 달이 다하도록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향도의 빛발을 따라
주체의 한길을 가고가리라

또한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대를 이어 혁명위업을 계승할 것임을 시사한 김정일 자작 기사 “조선아, 너를 빛내리”가 1980년대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녀성」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녀성」에 게재된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들은 김일성 찬양 관련 글들과 거의 형식을 같이 한다. 김정일의 업적 및 위대성을 찬양하는 글들도 “향도의 해발아래”, “누리에 빛나라 향도의 해발”,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의 해발아래”, “주체위업의 위대한 향도자”, “충성의 위대한 귀감”,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 “위대한 유훈을 받들어”,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등의 큰 제목 아래 다양한 작은 제목들로 여러 편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조선녀성」은 김정일의 노작을 해설 선전함으로써 ‘위대한 사상이론가’, ‘위대한 영도자’로서의 그의 위대성을 찬양한다. 이와 같은 글들에서 김정일은 특히 “김일성주의를 완벽하게 체현하신 탁월한 사상리론가”,³⁸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³⁹한 사상이론가, 사회주의사상 이론의 위대한 거장 등으로 찬양된다.

1984년 1호부터는 이른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신 말씀”이 김일성의 교시와 마찬가지로 형식으로 잡지의 맨 앞에 여러 차례 수록되었다. 예를 들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주신 말씀(발췌)”이라고 하여 김정일이 발표한 문헌들에서 관련 문구들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들이다.

김정일의 ‘가르치심’과 ‘말씀’은 “명제해설”, “투쟁과 생활의 지침”, “명언해설” 등의 고정 난을 통해서도 해설 선전한다. 한 예로 “명언해설” 난

38 「조선녀성」 (1982. 1), p. 29.

39 “승리와 영광의 50년 시대의 지도사상을 빛내이시며”, 「조선녀성」 (1995. 1), pp. 11-12.

에서는 김정일의 ‘명언’들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이를 불멸의 진리로써 해설 선전하며, 이와 같은 ‘명언 해설’을 통해 사상이론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한다. 또한 「조선녀성」은 “백두광명성전설”이라는 난을 편집하여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전설적인 이야기를 통해 김정일을 우상화하며, 김정일의 탄생지라고 하는 ‘백두밀영’과 ‘정일봉’ 관련 화보를 반복적으로 수록하기도 한다.

김일성 사망 이래 김정일을 찬양, 우상화하는 글들이 현저하게 많아졌으며 김정일을 ‘위대한 성인’으로까지 추앙하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녀성」에 게재된 바,

한 철학자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는 일찍이 타고르가 예언한 바로 그 동방의 밝은 빛이시다.》라고 하면서, 것처럼 력사적인 시기에 것처럼 력사적인 사명을 지니고 태양처럼 솟아오르신 김정일각하는 만민을 위하여 하늘이 낸 희세의 위인이시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 력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를 펼치시며 가장 자주적이고 행복한 삶을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성인이다.⁴⁰

라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 사망 이래 「조선녀성」에 수록되는 김정일 찬양 관련 글들은 그 내용에 있어 한결같이 김일성의 생전의 뜻을 높이 받들어 김정일에게 충성, 효성을 다할 것이며 김정일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40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백두산의 아들”, 「조선녀성」(1998. 1), p. 14.

김정일에 대한 찬양의 글들은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일시하여 업적 및 위대성을 찬양하며 특히 김정일의 숭고한 인간애,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 여성들에 대한 은덕과 배려,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효성 등을 크게 강조한다. 이와 같이 김정일의 업적 및 위대성을 찬양한 글들은 다음의 여덟 가지 주제로 집약할 수 있다.⁴¹

(i) 김일성과 동일시

「조선녀성」에 수록된 김정일을 찬양한 글들의 특징적 양상은 다른 무엇보다도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일시하여 찬양한다는 데에 있다. 김일성과 동일시하여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들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이 본격화되는 1990년대 이래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며, 김일성 사후로는 그 내용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은 “지주시대의 위대한 태양”,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등으로 찬양되기에 이르며 다음과 같이 김일성과 동일시되어 있다.

41 김일성 찬양 관련 글들의 주제에 비해 김정일 찬양 관련 글들의 주제가 많은 것은 이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한 「조선녀성」이 후계자 김정일이 공식화되기 직전인 1979년 1호부터 김정일 후계체제가 구축, 유지되고 있는 2003년 10호 현재까지의 것인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래 후계자 김정일의 이미지 형성을 위한 의도에서 「조선녀성」은 다양한 시각 내지 관점에서 김정일을 찬양, 이상화하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오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김일성과 동일시하는 한편 김일성과의 차별화를 피하고 있는 바, 김정일의 업적 및 위대성을 찬양하는 글들은 여러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영예로운 김일성민족으로 이름떨치게 된 우리 민족의 혈통은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확고히 이어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곧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이다.⁴²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천품을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일지도자님을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수로 받들어모시는 것은 우리모두의 의무이고 사명이며 무상의 영광⁴³

위대한 수령님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며 장군님은 수령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로 흐르며 수령님의 영생실록은 장군님의 혁명실록이다.⁴⁴

(ii) 하늘이 낸 위인

북한의 월간 문학잡지 「조선문학」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담은 “백두산전설”과 “백두광명성전설”이라는 단이 고정적으로 편집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녀성」에도 매호마다 연재되지는 않으나 김일성에 관한 “백두산전설”과 함께 김정일에 관한 “백두광명성전설”이 수록된다. 김정일을 이상화하기 위한 “백두광명성전설”의 내용은

42 “조선민족은 김일성민족”, 「조선녀성」 (1995. 2), p. 16.

43 “김정일지도자님은 곧 김일성주석”, 「조선녀성」 (1995. 1), p. 17.

44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라: 태양의 력사는 영원히 흐른다”, 「조선녀성」 (1998. 2), p. 12.

김일성에 관한 “백두산전설”의 내용과 거의 같다. 김정일 역시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신통력을 지니고 천지조화와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하늘이 낸 위인으로 형상된다. 그러나 “백두광명성전설”에서는 김정일의 탄생과 관련해 전설 같은 이야기를 소개, 선전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백두산의 장수봉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 또 한 번의 새 장수를 모시게 되었는데, 2월 16일에 “리명수마을” 사람들이 백두산이 보이는 높은 등판에 올라 보니,

갑자기 천고의 숲이 뒤설레이며 광풍이 일더니 장수봉부근이 희뵈히 밝아지는 것이었다. 순간 장수봉에서 청색의 불찌가 병곳 피여오르더니 장군별 곁에 또하나의 별이 솟아 백광을 뿌리었다. 《백두광명성이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것은 나라가 광복되고 백의민족이 흥할 징조라고 하였다.⁴⁵

는 것이다.

다음의 예는 “백두광명성전설” 난에서 소개되지는 않았으나 역시 「조선녀성」에 게재된 김정일의 탄생과 관련된 전설 같은 이야기로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열여섯 신선”이다. 이 글에서는 김정일이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 열 여섯의 신선이 내려와 한 귀틀집을 향해 큰 절을 드리고 “조선아, 백두광명성 솟았음을 알리노라. 이 땅에 영원한 복이 내렸도다”라고 알리었다고 한다.⁴⁶ 이와 동일한 제목의 이야기는 「조선문학」의 “백두광

45 “백두광명성전설: 백두산 장수봉에 광명성 솟았다”, 「조선녀성」 (1992.1), pp. 36-37.

46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하늘에서 내려온 열여섯 신선”, 「조선녀성」 (2000.1), p. 15.

명성전설”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게재될 바 있다. 또한 「조선녀성」의 “백두광명성전설”에는 천지조화,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등 천기를 다스리는 김정일에 관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김정일이 백두영봉에 오를 때에는 굶었던 날씨가 일시에 맑아지고 신기하고도 기상천외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바,

백두산에 오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비오는 차창밖을 한참 내다 보시다가 눈을 감으셨는데 그 순간 <파퓰>하고 우뢰가 치더니 구름장들이 갈라져 나가고 눈부신 해빛이 막 쏟아져 내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에는 무지개가 연거푸 서고 소백수와 천지사이에 무지개다리를 놓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백두의 천기를 다스리심이 분명하다.⁴⁷

는 것이다.

(iii) 위대한 영도자로서의 업적

북한은 김정일을 일컬어 ‘령도의 예술가’라고 한다. “령도란 민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구실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것인데 민중을 조선로동당의 로선 정책 관철어로 조직동원하는 그분의 솜씨가 재능 있는 예술가의 솜씨처럼 절묘하기 때문에”⁴⁸ 김정일을 영도의 예술가라고 한다는 것이다. 「조선녀성」에는 이른바 영도의 예술가, 위대한 영도자로

47 “백두광명성전설: 천기를 다스리신다”, 「조선녀성」 (1994. 2), pp. 19-20.

48 한재만, 「김정일: 인간, 사상, 령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4), p. 268.

서의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이 빈도 높게 게재된다. 한 글에서는 위대한 영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김정일식·주체식 정치, 창조적 정치, 세계적 판도에서의 정치 등 세 가지의 “특이한 정치방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특이한 정치방식, 특출한 의지와 담력, 배짱으로 우리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현시대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누가 잘 사는가 보자,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지이고 담력이고 배짱인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의지와 담력, 배짱은 우리 힘에 대한 확신과 락관에 기초하고 있고 혁명무력의 총대가 굳건한 이상 우리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신념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식, 우리 식, 주체식의 특이한 정치방식인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치방식에서 또한 특이한 것은 기성관례에 구애되지 않으시는 창조적인 정치방식으로 혁명의 승리를 마련해가시는 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당시업과 국가사업, 군사사업과 대외사업도 다 이렇게 기성관례에 구애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령도하고계신다. ...김정일장군님의 정치방식에서 특이한 것은 세계적판도에서 21세기까지 내다보시고 정치를 펴나가시는것이다.⁴⁹

또한 김정일은 혁명의 영도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품모의 하나인 “천리혜안의 과학적 예견성,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 주체의 혁명적 신념과 강

49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우리 장군님의 정치방식”, 「조선녀성」(1998. 2), p. 17.

철의 의지, 비상한 조직적 수완, 왕성한 사업의욕과 지칠 줄 모르는 정력을 지니었는 바,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⁵⁰라고 찬양되는가 하면, 이른바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떠나기는 위대한 영도자로 찬양되기도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장 숭고한 인간애를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떠나가신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치를 가리켜 사랑의 정치, 믿음의 정치, 광폭정치라고 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동계급과 농민과 함께 지식인도 굳게 믿어주시며 사회정치생활경위와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군중도 혁명의 기본동력으로,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사회까지 같이 가야 할 혁명동지로 보시고 그들 모두에게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고계신다.⁵¹

(iv) 인민과 병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북한은 “조국과 민족, 인민과 병사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김정일의 중요한 성격적 특질이며 김정일의 위대성의 기초라고 한다.⁵² 따라서 「조선녀성」에 실린 김정일 찬양 관련 글들 가운데는 특히 “숭고한 인간애를 지닌” 김정일의 인민과 병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얽힌 일화들이 많다.

50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 희세의 위대한 정치가”, 「조선녀성」 (1966. 1), pp. 11-14.

51 「조선녀성」 (1996. 3), p. 8.

52 장형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형상에서 거둔 혁신적 성과”, 「조선문학」 (1998. 3), 45.

이러한 글들에서 김정일은 인민들이 설 명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설날 아침에 사내를 한바퀴 돌아보고 오는가 하면, 일요일은 물론 명절날에도 현지지도에 나서는 등, 오로지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의 화신’으로 찬양된다. 또한 1980년대의 「조선녀성」에 한동안 연재되었던 “향도의 해발아래”라는 제목의 글들에서는 평양산원, 창광원, 개선문 등 이른바 기념비적 대건축물들이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최상의 수준에서 꽃피워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우리 인민에게 들려준 의의깊은 사랑의 선물”⁵³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김정일은 병사들에 대한 사랑도 매우 크다고 하는 바, 한 글에서는 지방 현지지도의 길에서 사랑하던 한 전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고 김정일이 비 내리는 밤길을, 쏟아져 내린 비에 찾길이 막혀 길 아닌 진창길을 걷고 걸어 전사의 영구가 안치된 평양으로 왔다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⁵⁴ 또 다른 글에서는 여군들에 대한 김정일의 사랑을 말해 주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김정일이 여성해안포중대를 시찰하고 돌아와 여성군인들이 바다바람에 얼굴이 뜬데 대해서 가슴이파 하며 고약과 약 크림을 보내주었는 바, “친부모보다 더 살뜰하고 다심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랑에 지휘관과 병사들은 감격에 목메이며 장군님을 위해 한목숨 기꺼이 바칠 맹세를 다지였다”는 이야기다.⁵⁵

53 “향도의 해발아래: 은혜로운 사랑넘치는 창광원”, 「조선녀성」 (1980. 7), p. 15.

54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 「조선녀성」 (1998. 1), p. 16.

55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녀성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조선녀성」 (2003. 3), pp. 10-11.

(v)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위대성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글들은 1992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때를 전후하여 급증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른바 “제국주의를 타승한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김일성의 업적 및 위대성은 주로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일어난 일들에 얽힌 일화들을 소개 선전하는 글들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과 같은 무장투쟁의 역사에 근거할 수 없는 김정일은 주로 군사사상 및 이론가, 전략가로서의 업적 및 위대성에 근거하여 찬양한다. 이를 테면 김정일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령군술로 우리의 혁명무력을 필승불패의 무적의 세계적강군으로 키우신 가장 걸출한 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⁵⁶이고, 김일성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군사이론, 군사전법을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키어 주체적 군사학의 전반적 구성체계와 내용을 발전 완성시킨 위대한 군사이론가라는 것이다. 또한 병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지극한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이 찬양되는 바, 김정일은 전선 서부와 동부, 중부의 최전연고지들과 바닷가 초소도 찾아가 병사들에게 백승의 지략과 담력을 안겨 주는 최고사령관이라고 한다. 「조선녀성」에 게재된 “90년대의 《전선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1996년에 진행된 김정일의 전선시찰에서 있었던 “전설같은 일화”들을 소개 선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적진 1,200미터 앞 최전연초소에까지” 나가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행복을 굳건히 지켜갈

56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불패의 혁명무력을 키우시어”, 「조선녀성」 (1998. 2), p. 21.

비범한 전략전술”을 밝혀주고 병사와 기념사진도 찍어주고 “친히 준비해가지고 오신 검소하고 소박한 아전식사”를 병사들과 함께 하는 등, 병사들을 사랑하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이 찬양되고 있다.⁵⁷

(vi) 여성들에 대한 은덕과 배려

김일성에 대한 찬양의 글과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글들에서는 특히 김정일의 여성들에 대한 은덕과 배려에 관한 글들이 많다. 이러한 글들에서 김정일은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매우 자상하고 섬세하며 부드러운 인품의 지도자로 그려져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꽃들이 해빛아래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우리 여성들의 삶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의 빛발아래 봄날의 회원처럼 활짝 피어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성들의 명절을 계기로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꽃도 안겨주고 축하장이나 그림엽서 같은것도 보내면서 축하해지면 사회적분위기가 아주 좋아질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⁵⁸

녀학생들에게 조선옷 대신 양복을 해입히라고 가르쳐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였다. 친부모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할 어머니사랑으로 한창 자라나는 녀학생들의 발육에 지장이 있을수 있다는 것을 헤아리시고 양복을 해주라고 일깨워주시고도 이처럼 오히려 일군들을 치하해주

57 「조선녀성」(1996. 4), pp. 12-13.

58 “지주시대의 위대한 태양 사연 깊은 축하장”, 「조선녀성」(1996. 2), p. 22.

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수도녀성들에게 꽃나이론 달린옷을 해입히게 되었을 때였다. 우리 녀성들에게 더욱 화려하고 맵시나는 옷을 해주시려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으신 뜻⁵⁹

또한 김정일 역시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특히 어린이와 어머니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지대한 바, 평양산원은 김정일의 세심한 지도와 사랑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이로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권위, 생명의 가치,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존엄을 무엇으로도 측정할수 없는 무게로 높이 떠올려주시겠”⁶⁰이라고 찬양한다. 그런가 하면 「조선녀성」에서는 강원도 원산시에 사는 41명의 일본인여성들이 김정일에게 올린 편지를 게재하여 북한에 거주하는 일본인여성들에 대한 김정일의 배려를 찬양하고 있다.

만일 저희들이 일본에서 살았다면 황금만능의 세상에서 남존녀비의 악습 밑에 인간존엄을 무참히 짓밟히우면서 보람없이 살고있었을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선인남편을 따라 자본주의사회와 결별하고 사회주의조선에 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서 살며 일함으로 하여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친

59 “향도의 해발아래: 우리 인민의 옷차림에 갖든 커다란 배려”, 「조선녀성」 (1984. 4), p. 7.

60 “충성의 위대한 귀감: 수령님의 기쁨을 마련하시는 길에서”, 「조선녀성」 (1989. 1), p. 7.

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로 받아들여서는 지극한 효녀가 되겠습니다.⁶¹

여맹과 관련해서도 김정일은 여맹사업에 대해 관심이 크며 여맹을 당에 충실한 혁명조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에 주력한 지도자로 찬양된다.

《조선녀성》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향도의 빛발아래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성기를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 출판보도물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만 연결시켜 부를수 있는 주체형의 혁명적출판물로 새롭게 정식화하시고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으며 그 기본사명, 과업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⁶²

(vii) 충효의 화신

김일성에 대한 찬양과는 달리 김정일의 위대성 찬양에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충효의 화신으로서의 김정일의 업적 및 위대성 찬양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위업을 계승한 후계자의 기본품성이다. 수령의 계승자는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드는 것을 근본사명으로,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으로 삼고 인민대중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당과 혁명의 지도자”⁶³라는 것이다. 따라

61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올립니다”, 「조선녀성」(1993. 1), pp. 12-13.

62 「조선녀성」(1996. 5), 20-21.

63 윤기택, 「수령형상문학」(평양: 문예출판사, 1991), p. 428.

서 북한 문헌을 통해 보면 수령의 후계자 김정일은 위대한 사상이론가, 혁명과 건설의 영재, 숭고한 덕성을 지닌 인민의 아버지로서 김일성을 숭앙하며, 이러한 존경심과 충성심 때문에 수령이 바라고 수령의 심려를 덜어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택하고 거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다고 한다.⁶⁴

「조선녀성」에 수록된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들에서도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김정일의 가장 큰 덕목으로 내세우고 김정일을 ‘충효의 최고화신’으로 크게 부각시켜 찬양하며 이를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한다. 김정일은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효심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충효의 최고귀감, 최고화신”이므로 “모든 여성들과 녀맹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가장 숭고한 충효심”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⁶⁵ 김일성에 대한 김정일의 충효심을 찬양하는 데서 자주 언급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에 얽힌 일화이다. 이 송가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를 창작할때 대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간곡한 가르침”을 받은 데 따른 것이며, “당중앙의 발기에 의하여 충성의 송가 창작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다.⁶⁶ 이와 함께 자주 게재되는 또 다른 일화는 김정숙이 사망한 1949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당시 유치원생이던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 주위사람들을 초청하여 설맞이모임을 가졌다는 이야기이다.⁶⁷

64 한재만, 「김정일: 인간·사상·령도」(평양: 평양출판사, 1994), p. 67.

65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 충효는 혁명가의 최고인격이다”, 「조선녀성」(1996. 2), p. 23.

66 “향도의 해발이래: 충성의 송가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 「조선녀성」(1982. 1), p. 20.

(viii) ‘남조선인민’들의 흠모과 찬양

김일성 찬양 관련 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글들에서도 김정일을 흠모, 찬양한다는 ‘남조선 인민’들에 관한 글들이 많다.

찬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향도성, 통일의 향도성으로 우리 러 칭송하며 그이를 통일의 단상에 높이 모시려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은 날을 따라 뜨거워지고 있다. 부산의 한 국민학교 교원이 작사작곡하여 담임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급하였다는 《그리운 향도성》이라는 노래는 남녘인민들의 이 뜨거운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열렬한 흠모의 노래가 부산만이 아닌 서울과 광주, 인천과 대구 아이들의 작은 교실에서만이 아닌 대학의 강당에서, 공장과 농촌, 이름없는 외진 섬과 태백산줄기의 마을에서도 울려나오고 있다.⁶⁸

《김정일화》는 남해가와 제주도, 지리산의 계곡에서와 섬마을에서, 도시와 농촌마을의 가정들에서도 붉고 소담하게 피어나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공무원》은 온 가족이 애써 가꾸고 피운 《김정일화》를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⁶⁹

67 “빛나는 향도의 별, 저택에서 마련하신 설맞이모임”, 「조선녀성」(1983. 1), p. 17.

68 “주체의 향도성, 통일의 향도성”, 「조선녀성」(1993. 1), p. 18.

69 “남녘땅에 만발하는 《김정일화》”, 「조선녀성」(1994. 1), p. 16.

위에서와 같이 김정일을 흠모, 찬양하는 ‘남조선 인민’들에 관한 글들 가운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1992년 평양에서 진행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토론회’에 참석했던 남측 대표단이 했다는 다음과 같은 발언 내용이다.

지난해 9월에 진행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에 참가한 남측 여성대표단 성원들은 평양산원, 김정숙택아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며 새로운 여성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솔직한 심정을 아래와 같이 피력하였다. 이남에는 여성이 있어도 녀권이 없고 아직도 가부장제의 보수성이 여성들에게 종속을 강요하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불평등이 조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북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정계와 전문분야에서 자기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택아소와 유치원이 있어 결혼한 여성들도 미움놓고 사회활동을 할수 있다. 참말로 이북은 민중의 락원이고 여성들의 천국이다.⁷⁰

2. 김정숙 찬양 및 이상화

1980년 10월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김정숙을 찬양하고 이상화하는 글들이 급증하였으며 점차 지면 할애가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 예로 김정숙의 생일(12.24)이 들어 있는 달에 발간된 1981년의 「조

70 “이북은 민중의 락원이고 여성들의 천국이다”, 「조선여성」 (1993. 5), p. 19.

선녀성」 12호는 회보를 포함해 10여 쪽에 걸쳐 김정숙 찬양 관련 글을 게재하였으며, 다음해인 1982년 9호는 그 때부터 새로이 만들어진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우자”라는 고정 난에 여러 가지의 작은 제목들로 김정숙을 찬양하는 글들을 11쪽에 걸쳐 게재하였다. 김정숙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글이 가장 많이 수록되는 호는 매년 12월에 발간되는 「조선녀성」이다.

김정숙 찬양 및 우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글들은 “불멸의 혁명력사”, “영원히 빛나는 충성의 별”, “숭고한 구감”, “주체형의 혁명투사의 귀감이신 김정숙녀사를 따라배우자”,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우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따라 배우자”, “불멸의 생애, 빛나는 구감”, “빛나는 거울” 등의 큰 제목 아래 여러 가지 작은 제목들로 글이 게재되어 왔다. 또한 이들 가운데 특히 “불멸의 생애, 빛나는 구감”이라는 고정 난에서는 한동안 김정숙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혁명투사로 그의 생애와 활동을 연재하였으며, “위대한 어머니 품”이라는 고정 난에서는 특히 김정숙이 김정일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면서 보여준 모범적인 모습들을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 소개 선전하였다.

1949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숙에 대한 찬양 및 우상화는 주로 김정숙의 항일유격활동과 김일성정권 창립을 전후한 그의 혁명 활동에 얽힌 다양한 일화를 소개 선전하는 회고의 형식으로 게재된다. 또한 「조선녀성」에는 “김정숙군”을 비롯한 주요 김정숙혁명사적지를 답사한 글들과 사적지 관련 회보가 반복적으로 게재되며, 특히 해방 전 김정숙이 지하혁명 투쟁을 하면서 다닌 사적지와 사적물들이 많다고 하는 “력사의 땅 김정숙군”, “김정숙혁명사적지”에 관한 회보가 빈도 높게 수록된다. 후계자 김정일의 공식화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북한여성들에게 의무화된 ‘김정숙

따라 배우기 운동'에 관한 글들도 자주 게재된다. 이러한 글들은 '김정숙 따라 배우기를 적극 선동하는 글, 또는 '김정숙 따라 배우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여맹 초급단체들을 소개 선전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1980년 「조선여성」 12호에 수록된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우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라는 글에는 ‘김정숙 따라 배우기 사업’의 의의와 김정숙에게서 따라 배워야 할 주요 덕목, ‘김정숙 따라 배우기 사업’ 강화 방도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⁷¹

먼저 이 사업의 의의에 대해서는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우는 사업은 어머니의 뜨거운 충실성을 따라배워 모든 여성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며, “어머니의 참된 모범을 따라배워 모든 여성들이 무한한 헌신성과 높은 열의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게 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김정숙을 따라배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수령에 대한 맑고 깨끗한 충성심,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고상한 혁명가적 기풍,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 혁명적 사업방법의 빛나는 모범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김정숙 따라 배우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방도로는 김정숙의 혁명적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더욱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할 것, 사업을 중요과업으로 내세우고 실천 활동과 밀접히 결합해 나가야 할 것, 즉 조직사상생활에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수령과 당중앙에 충직한 혁명가로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것, 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끈기 있게 진행해 나가야

71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우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조선여성」 (1980. 12), pp. 11-12 참조

할 것, 즉 따라 배우기 위한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이를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 등을 제시해 놓았다.

「조선여성」에 수록되는 김정숙 찬양 및 이상화 관련 글들은 주로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 찬양, 공산주의 혁명투사로서의 품모 찬양, 여성해방 및 여맹 관련 업적 찬양, 인간적 품모 찬양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조선여성」에는 김정숙이 위대한 교육사상가, 실천가이며 어린이교육교양사업에서도 빛나는 업적을 남기었고, 특히 어머니들이 사상교양, 도덕교양을 중심으로 가정교양을 잘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는 글들이 게재되어 있다.

김정숙을 찬양하고 이상화한 글들은 다음의 네 가지 주제로 집약할 수 있다.

(i)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 찬양

김정숙을 찬양하는 글들에서는 김일성의 사업을 보좌하고 그의 심려를 덜어주는 것이 김정숙에게 있어 최상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으며, 김정숙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보장해드리시고 도와드리시는데만 집중되고 있었다.”⁷²라고 한다. 또한 「조선여성」에 실린 글들에서 김정숙은 김일성의 높은 뜻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렸고, 김일성의 사상과 노선, 명령지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결사 관철하였으며, “단 한발의 적탄이라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사령부쪽으로 날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적들을 자신께로 유인”⁷³하는 “수령결

72 “충성의 한미음 안으시고”, 「조선여성」(1983. 2), p. 21.

사용위” 정신을 보여 준 수령의 충직한 친위전사로 칭송되기도 한다. 「조선녀성」에는 김정숙의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을 말해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양하게 소개된다. 예를 들면 김정숙은 김일성이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 일을 하는 동안 사무실이 마주 보이는 정원가에 나와 눈을 맞으며 “겨울밤의 추위도 아랑곳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교대없는 《보초》”를 섰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⁷⁴ 김일성의 신변안전을 위해 김정숙은,

창문에 푸릿한 새벽빛이 비끼면 벌써 정원으로 나가시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밟으실 길을 먼저 걸으시여 찬이슬을 터시고 락엽을 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귀중한 휴식의 한순간을 댁에서 보내시는 점심때면 녀사께서는 언제나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 창문아래 마당가에 계셨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키시기 위해 한밤중에도 몇 번씩 일어나시여 저택주변을 돌아보시였다.⁷⁵

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찬양되는 김정숙의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은 원정의 길 떠나는 김일성의 안녕을 위해 김정숙이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슈아 신발칼개를 만들었다는 일화⁷⁶에서 극치를 이룬다. 또한 김정숙은

73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사하십니다”, 「조선녀성」(2003. 3), p. 16.

74 “숭고한 모습 우러르며”, 「조선녀성」(1980. 12), p. 15.

75 “숭고한 구감: 충성의 한마음 안으시고”, 「조선녀성」(1984. 6), pp. 12-13.

76 “간절한 소원”, 「조선녀성」(2001. 4), p. 30.

잡지 「조선여성」은 장군님께서 창간하시고 지도하시는 출판물이기 때문에 전체 여성들을 장군님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장군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편집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잡지에 실리는 모든 글들이 장군님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장군님을 높이 칭송하는데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야 합니다.⁷⁷

라고 하여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조선여성」 편집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해 주었다고도 한다.

(ii) 공산주의혁명투사로서의 품모 찬양

김일성에 의하면 김정숙은 “시령부의 로선이나 작전적방침과 어긋나는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하지 않고 견결하게 투쟁”⁷⁸한 철저한 사상론자였으며, 이름난 명사수, 능숙한 지하공작원, 모진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강毅한 공산주의자, 남달리 조국과 동지를 사랑했고 혁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열렬한 혁명기였다고 한다.⁷⁹ 김정숙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혁명투사로서의 그의 생애와 활동을 연재한 “불멸의 생애, 빛나는 구감”에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에 관한 일화가 다양하게 소개 선전되어 있다. 예를 들면

77 “빛나는 생애, 숭고한 품모: <김일성장군님의 혁명투쟁력사를 소개합니다>”, 「조선여성」 (1996. 1), p. 19.

78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우자: 신념의 메아리”, 「조선여성」 (1998. 1), p. 23.

79 「조선여성」 (1987. 6), p. 19.

김정숙은 야학에서 배운 혁명의 진리를 마을 여성들에게 알려주며 야학에 나올 것을 적극 권유했는가 하면, 가족들에 대한 교양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어 일가 모두의 혁명적 각성을 높이었다고 한다.⁸⁰ 또한 「조선녀성」에 실린 한 글 에서는 김정숙이 항일유격투쟁 당시에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연유도 밝히고 있는 바, 김정숙이 유격구 생활을 하면서 “동지들의 사랑과 믿음”이 나날이 커감에 따라 공청구위원회는 “남달리 슬기로우시고 역세이시고 비단결같은 마음씨를 지니신 정직하시고 현숙하신 녀사를 정숙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⁸¹ 공산주의 혁명투사로서의 김정숙의 풍모를 찬양하는 글들 가운데는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해 나가는 김정숙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자세히 묘사한 글도 있다.⁸²

(iii) 여성해방 및 여맹 관련 업적 찬양

「조선녀성」에 실린 글들에서 김정숙은 김일성이 내놓은 여성해방운동에 관한 사상을 받들고 조선여성운동의 강화발전과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투쟁해 온 여성해방운동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된다. 또한 김정숙은 김일성의 뜻을 받들어 「조선녀성」 창간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 주었으며, 「조선녀성」이 여성들을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민주조

80 “불멸의 생애, 빛나는 구감(2): 투쟁의 첫걸음”, 「조선녀성」 (1980. 1), pp. 15-16.

81 그 때까지 김정숙은 ‘연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그 이름은 연약한감을 자아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불멸의 생애, 빛나는 구감: 팔도구광산로동자들 속에서”, 「조선녀성」 (1980. 5), p. 25.

82 “빛나는 생애, 숭고한 풍모: 성새가 되시여”, 「조선녀성」 (1996. 4), p. 25.

선을 일떠세우는 투쟁으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⁸³가 되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한다. 김정숙은 여맹조직을 강화 발전시킨 것으로도 높이 찬양된다. “김정숙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에 녀맹조직들은 해방직후의 그 복잡다단한 속에서도 언제나 충성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올수 있었으며 당의 믿음직한 대중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⁸⁴라는 것이다.

(iv) 인간적 품모 찬양

「조선녀성」은 “빛나는 거울”이라는 난을 통해 김정숙의 인간적 품모를 말해 주는 일화들을 소개 선전한 바 있다. 여기에서 김정숙은 언제나 인민들 속에 있으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밝은 앞날을 펼쳐 주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예를 들어 김정숙은 한 농가에 들러 익숙한 솜씨로 도리깨질을 하고 건설장에서 삽질도 하는 등 소박하고 겸손한 품성을 보이며 고아를 데려다 돌보아주는 자상함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김정숙의 인간적 품모는 특히 소박함과 겸손함, 친어머니와도 같은 자상함과 따뜻함으로 형상되며 「조선녀성」에는 이와 같은 김정숙의 품모를 말해 주는 일화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김정숙의 소박함과 겸손함을 찬양한 글들에는 “보통가정부인과 같이 수수하게 몸단장을 하신 김정숙동지께서 … 《이제부터는 나를 정숙동무라고 불러주시오. 그래야 동무들사이에 자연스럽고 더 다정스럽지 않습니까. 나도 동무들과 같은 한 녀맹원이고 특히 같은 당원

83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7」, p. 566.

84 “빛나는 거울: 친근한 스승이 되시여”, 「조선녀성」(1991. 5), p. 17.

인것만큼 꼭 정숙동무라고 불러주시오》”⁸⁵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김정숙이 수수한 작업복차림으로 공사장에 나와 여맹원들과 함께 삽질도 하고 질통도 메면서, 비바람 속에서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는 일화도 소개되어 있다.⁸⁶

또한 김정숙의 친어머니와도 같은 자상함과 따뜻함을 찬양한 글들 가운데는 김정숙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길 잃은 어린 소년을 업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인 후 다시 업고 집을 찾아 데려다 주는 등 “한없이 고결하고 인자하신 풍모”를 보여주었다는 일화⁸⁷와, 김정숙이 “내무성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생활준칙의 요구대로 목욕도 자주하고 속옷을 제때에 빨아 갈아입도록 하며 자기전에는 반드시 발을 씻도록 하여야 한다고 다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학생들의 생활을 보살피주시었다.”⁸⁸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이 외에도 금강산에 올랐던 김정숙이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 가자 남편(김일성)의 식사 준비를 위해 금강산 구경을 중단하고 하산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글에서는 김정숙이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풍모를 높이 찬양하고 있다.⁸⁹

김정숙의 인간적 풍모를 찬양한 글들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운형의 딸 여연구가 “일찌기 부모의 품을 떠난 저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애지중지 키우시며 지극히 돌봐주신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을 그리워하며

85 “빛나는 거울: 하나의 모기장을 놓으시고도”, 「조선여성」 (1995. 1), p. 22

86 “영원히 빛나는 충성의 별: 보통강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할 이야기”, 「조선여성」 (1979. 5), pp. 14-15.

87 「조선여성」 (1996. 5), p. 22.

88 “빛나는 생애, 숭고한 풍모: 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피시며”, 「조선여성」 (1996. 2), p. 24.

89 “빛나는 거울: 되돌아서신 걸음”, 「조선여성」 (1995. 2), p. 26.

쓴 글이다.⁹⁰

3. 사상교양

여맹은 사상교양단체이며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여맹의 주요 임무로 되어 있다.

여맹은 사상교양사업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여맹조직들은 현시기 사상교양사업에서 기본은 주체사상교양이라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원리교양, 충실성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여맹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으로 일관시키며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기야 한다.⁹¹

「조선녀성」을 통해 보면 여맹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수행하는 사상교양의 내용은 주체사상교양,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미래사랑정신교양, 집단사랑정신교양, 노동사랑정신교양,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 등이며, 특히 주체사상교양,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계급교양,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도덕교양은 “동맹조직들이 놓치지 말고 틀어쥐고 나가야 할 사상교양의 중요한 한 고리”라고 하며 「조선녀성」에는 매호마

90 “어머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조선녀성」(1981. 4-5), pp. 25-30.

91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여맹조직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 「조선녀성」(1992. 5), pp. 30-31.

다 다양한 제목으로 공산주의도덕에 관한 글이 게재되고 있다.

여맹조직들은 여맹원들에 대해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도록 한다. 또한 여맹원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는 바, 부르조이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혁명적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부르조아 복귀주의를 배격하도록 한다.

「조선여성」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자료”, “주체사상학습실”, “원리학습실”, “혁명전통학습자료”, “혁명전통학습참고자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000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발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000할데 대하여 주신 말씀(발취)”, “당의 방침 해설”, “해설”, “물음과 대답”, “문답해설”,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 “구호해설” 등의 난을 통해 사상교양 관련 자료를 해설 선전해 오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그림이야기”라는 고정 난에서는 지주·자본가·미제국주의 반대 등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노동사랑정신교양 등을 위한 그림을 곁들인 이야기를 게재한다. “그림이야기”에는 특히 해방 전, 또는 한국전쟁 당시 실존인물의 체험담을 소개 선전하는 내용들이 많이 게재되는 편이다. “재담”이라는 고정 난에서는 여성 두 명, 또는 남성과 여성 두 명이 나와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 등을 재치 있고 흥미롭게 해설 선전한다.

사상교양 관련 글들로는 김일성·김정일 노작의 해설 선전과 김정일의 인덕정치, 군 중시정치, 선군정치 등을 해설 선전하는 내용의 글들이 비중 있게 수록되며 최근에는 선군사상 등 김정일 사상이론의 위대성 교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말 이래 「조선여성」에는 군 중시정치와

선군정치에 관한 글이 빈도 높게 게재되고 있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군 중시정치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믿고 그에 의거해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 나가는 정치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새롭게 규정해주시고 혁명의 맨 앞장에 내세우는 원칙을 밝혀주시었다. 이 원칙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데서도 제일이고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서도 맨 앞장에 서며 온 사회에 혁명적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세워나가는 데서도 제일기수로 되고있는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워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원칙이다.⁹²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와 반제지주 세력이 가장 격렬하게 맞서고있는 투쟁의 시대이다. 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속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려면 마땅히 군사가 중시되어야 한다. 선군정치방식은 바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이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군대의 강화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정치방식이다.⁹³

북한은 구소련 해체 및 동구사회주의권 붕괴를 전후로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사상교양에 주력한 바, 1990년대 이래 「조선녀성」에도 관련 글들이 비중 있게 수록되고 있다. 한 예로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이라는 난에서는 주로 러시아와 동구라과 국가들의 비참한 생활상과

92 “우리 장군님의 군중시정치”, 「조선녀성」 (1999. 1), pp. 15-16.

93 “우리 시대의 완성된 정치방식”, 「조선녀성」 (1999. 5), p. 18.

특히 여성 및 어린이 생활의 어려움을 밝히는 글들이 연재되었으며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의 정치가 펼쳐진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두가 어엿한 나라의 주인으로 값높은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 여성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어린 자식을 파는 어머니들, 료락의 길에 떨어진 젊은 여성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며 한 장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여성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복귀의 쓰디쓴 결과였고 사회주의를 버리면 죽음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증거였다.⁹⁴

오늘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 여성들의 처지는 말할수없이 비참한 형편에 놓여있다. …여성들은 갈수록 더해만가는 실업과 빈궁 속에 비인간적인 학대와 폭행까지 강요당하고 있다. …로씨야에서는 남편이 안해를 박해하고 매질하는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 여성들의 공포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폭행으로 하여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1만 4,500명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5만 6,400명이 불구자로 되었다. …사회의 혜택속에 응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여성들이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자본주의복귀가 가져온 산물이다.⁹⁵

94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 보람찬 삶, 절망의 길”, 「조선여성」 (1995. 2), p. 34.

95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 사회주의를 그리며”, 「조선여성」 (1995. 6), p. 39.

이전 소련과 동구라파나라 어린이들은 사회주의요람을 잃고 자본주의복귀의 첫째기는 희생물로 되어 헐벗고 굶주리고 방황하고있으며 지어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⁹⁶

지주, 자본가, 제국주의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계급교양을 위한 글들은 대체적으로 매호마다 잡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계급교양 관련 글을 게재하는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을 잊지 말자!”라는 난에서는 주로 해방 전에 지주와 일제의 횡포로 고생한 여성들의 회고를 통해 지주에 대한 증오심과 반일감정을 고취시킨다. 또한 6·25전쟁 당시의 “미제의 야수적 만행”에 관한 글들에서는 특히 “미제”에 의한 부녀자와 어린이 학살에 대해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어휘들을 구사하여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반미적 개심을 고취시킨다.

미제는 어머니와 어린이들을 따로 갈라놓아 어머니의 간을 말리워죽이고 어린이들의 피를 말리워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엄마를 찾아 젖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철부지어린것들에게 휘발유를 먹고 창고에 불을 질렀으며, …미제 야수들은 신천구에서 약 45일간에 3만5천여명의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놈들은 총살, 타살, 교살, 생매장 등의 야수적만행은 물론 코와 귀를 떼어 끌고 다니다 죽이며 눈알을 뽑고 젖기슴을 도려내고 머리기죽이나 몸기죽을 벗겨서 죽이고 오관과 사지의 각을 떠서 죽이고 십자기에 못을 박아 죽이는 등 듣기만 하여도 몸서리치는 잔인무도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⁹⁷

96 “타고난 불행이 아니다”, 「조선녀성」(1996. 2), p. 40.

97 “분노의 땅 신천은 고발한다”, 「조선녀성」(1995. 6), p. 36.

「조선여성」에는 거의 매호마다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들도 게재된다. 글의 요지는 일제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기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며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고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지의 글들은 “일제가 감행한 민비살해사건의 진상”, “일제의 강압적인 《강화도조약》체결죄악” 등과 같은 제목으로 게재되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설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밝히고 있다.

4. 여맹 활동 및 모범 사례

가. 여맹 활동

「조선여성」에 게재된 글들을 통해 보면 여맹 조직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i) 사상교양사업

여맹의 사상교양사업은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을 사상교양의 기본형식으로 하여 교양, 강연과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 모임선동을 비롯한 선동사업을 조직하며, 긍정적 모범으로 부정을 감화시키는 방법, 해설과 설복의 방법 등으로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⁹⁸ 따라서 각 여맹 조직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독보, 책읽기, 혁명적 노래보급, 예술선동,

98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녀맹조직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 「조선여성」 (1992. 5), p. 31.

구호문헌 해설 및 참관, 혁명사적지 조성 및 참관, 영화감상발표모임, 예술소조공연, 영화감상모임, 덕성자료 감상 토론모임, 읽은책발표모임, 연구발표모임 등의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방법들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먼저 ‘독보’란 주로 아침시간에 행해지는 것으로 미리 독보계획을 세워 매일 아침 30분 정도의 독보시간을 갖는 것을 말한다. 독보계획에는 수령의 노작과 교시들, 그 구현인 당의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책읽기’는 연간 책읽기 과제를 주고 그에 근거하여 분기별, 월별 책읽기 계획을 세운 다음 철저히 집행하며 모범여맹원의 경험발표모임도 조직하는 사상교양사업 방법이다. ‘책읽기’에서는 「김일성저작집」, 「김정일선집」을 비롯한 노작과 문헌 학습에 기본을 두면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인민들속에서」,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회상하여」 등과 같은 많은 덕성도서들도 읽는다. 또한 신문, 잡지, 문예서적을 읽기도 한다. ‘혁명적 노래보급’은 먼저 노래보급책임자를 선정하여 노래보급책임자가 혁명적인 노래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여맹원들에게 인식시키면서 노래 보급 전에 노래에 담긴 사상주제에 대하여 해설 등을 하는 사상교양방법이다. 사상교양방법으로서의 혁명적 노래 보급은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는 인민들을 고무추동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혁명적 노래 보급을 하는 여맹원들은 혁명적인 노래들로 예술소품공연을 준비하여 광산, 농장, 공장 등을 찾아가 노래한다. ‘예술선동’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업적 내용을 주제로 하여 중창, 중창이야기, 북제창, 합창시, 대화시, 독창, 무용, 기타 독주 등의 종목으로 공연하는 것을 말하며 예술선동으로 사상교양을 강화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조선녀성」을 통해 본 바, 사상교양을 위한 여맹조직의 주요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역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학습이다. 김일성과 관련해서는 그의 노작과 교시 학습, 혁명역사 및 덕성 실기 등에 대한 학습,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학습, 그의 위대성 학습 등이 있다. 김정일과 관련해서는 그의 노작과 말씀 학습, 문헌원문 학습, 혁명사상 및 덕성실기 학습, 명언 학습, ‘선군혁명실록’⁹⁹ 학습, 그의 위대성 학습 등이 있다. 김일성 사후에는 특히 김정일의 위대성교양 학습을 강화하였는 바, 김정일의 위대성 체득을 위한 교양사업으로 김정일의 위대성과 관련한 학습제목을 제시하여 의무적으로 학습하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김정숙의 “승고한 충성심을 따라배우기 위한 학습”으로 도서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녀사」, 「영원한 친위전사」 등 김정숙의 생애와 혁명활동을 수록한 책들을 읽으며, 읽은 책 발표모임 등에 적극 참가하여 충성의 결의를 다짐한다. 강반석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하여 도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 학습을 하는 여맹조직이 있기는 하나 드문 편이다. 그러나 여맹조직들에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회상기 학습을 비중 있게 하며 특히 항일유격대원들의 회상기 「김정숙동지를 회상하여」, 「그는 사령관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다」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한 김정숙의 생애와 혁명업적을 적극 따라 배운다. 또한 항일혁명투쟁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여맹원들로 하여금 항일혁명선열들의 백두의 혁명정신 ‘고난의 행군 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한다. 또한 여맹조직들에서는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 위한 학습도 비중 있게 하는 편이며, ‘로동신문’에 실리는 혁명일화를 종합하여 자료집을 만

99 ‘선군혁명실록’이란 “주체혁명의 계승완성을 위한 백전백승의 경험과 업적이 집대성된 불멸의 총서”라고 한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자”, 「조선녀성」(2002. 3), p. 10.

들어 혁명일화를 학습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 당의 영도업적교양,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교양, 은덕교양 등을 위한 자료 학습이 있다. 이 가운데 ‘은덕교양이란 당의 은덕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으로, 특히 김일성·김정일이 노동계급에게 베푼 사랑과 배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는 덕성토론회에 주력하며, 덕성자료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학습한다.

학습은 일·주·월별로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 하루에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행해지는 정기 학습, 또는 강연회를 비롯한 집체학습 참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여맹원들에 대해 학습을 일상생활화 하도록 한다.

(ii) 인민군대 원호사업

인민군대 원호사업은 북한 당국이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 발양이라는 명분으로 적극 장려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조선녀성」에는 “우리 녀맹원들은 인민군대를 적극 도와주는 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가장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전사들인 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주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휘해나가겠다.”¹⁰⁰라고 다짐하는 글들이 빈도 높게 게재된다. 또한 인민군대 원호사업이 군민일치의 미풍을 한껏 구현하고 있음을 「조선녀성」은 다음과 같이 소개 선전하는 바,

인민군인들의 생일을 빠짐없이 알아두었다가 친어머니의 손길로 생일

100 “끝없는 영광, 충성의 맹세”, 「조선녀성」 (1992. 3), p. 16.

상도 차려주었고 명절때면 군인들과 한집안식구처럼 다정하게 모여 앉아 명절을 즐기기도 하였다. …녀맹원들은 나라도 지키고 사회주의건설도 하는 인민군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며 해마다 첫물 시금치며 봄배추, 오이를 비롯하여 신선한 남새와 과일을 마련해가지고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아름다운 미풍속에서 군민의 정은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¹⁰¹

라고 한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래 「조선녀성」에는 인민군대 원호사업과 관련한 글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1990년대 후반 들어 군 중시사상, 선군영도, 선군정치 등이 부각됨에 따라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관련 글들이 매우 빈도 높게 게재되고 있다. 인민군대 원호사업은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또는 각종 건설장에 동원된 군인들을 찾아가 지원물자 전달, 인민군군인 건설자들의 전투장을 찾아가 예술소품공연, 후방가족 영예군인가족 전사자기족 돌보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iii)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북한에서 군중 교양의 기본 방법이며 당적 방침으로 되어 있는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대중들 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 모범을 제 때에 찾아내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 북한은 1979년 10월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을 발기하고 전 사회적·군중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 강화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숨은 영웅 따라배

101 「조선녀성」 (1992. 2), p. 32.

우기 운동'이 발기된 후로 「조선여성」에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자”라는 제목의 글들이 선동문 또는 사례 소개 등의 형식으로 빈도 높게 게재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은 활동들 외에도 각 여맹조직과 여맹원들은 탄광지원, 철도 돕기 지원, 유휴자재수집사업,¹⁰² 어머니학교 운영, 경제선동을 위한 ‘여맹기동예술선전대’ 활동 등을 하며 모뜨기, 김매기, 가을걷이, 이삭줍기 등, 매 영농 공정에 적극 참가하기도 한다. 「조선여성」에는 특히 여맹초급단체와 가두여맹원들의 탄광지원 사례에 관한 글들이 비교적 많이 게재되는 편이다. 또한 탄부 아내들의 석탄증산 투쟁과 관련한 실화도 자주 소개 선전된다. 탄광지원 사례들을 통해 보면 초급단체와 가두여성석탄지원대들은 소공구, 침구류, 각종 부식물 등의 지원물자를 가지고 탄광을 찾아가 탄부들에게 전달하며, 탄부 합숙소 청소, 탄부 작업복 세탁 등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사례들 가운데 하나는 여맹원들이 매일 아침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준비해 가지고 나가 출근길에 오른 탄부들을 축하해 준다는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다.¹⁰³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어머니학교에서는 여맹원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수령의 노작과 교시에 대한 문답식학습경연, 충성의 노래 보급, 덕성이야기 모임, 읽은책 발표모임, 계급교양이야기모임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여맹조직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바, 이는 김정일의 군 중시사상 및 선군정치

102 일주·월별 목표를 세워 파비닐, 파지, 파고무 등을 모아 일용품공장에 보낸다 고 한다.

103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을 위해: 탄전에 잇닿은 마음”, 「조선여성」(1995. 6), p. 31.

이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사업’이 전 사회적·군중적으로 확산·심화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은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 지도를 하며 ‘혁명적군인정신의 숭고한 귀감’을 찾아내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였으며,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결정적 고리가 전체 인민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데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 사업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심화시켜 나가도록 했다고 한다.¹⁰⁴

나. 모범 사례

「조선녀성」에는 모범 여맹단체 및 여맹원들의 사례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영원한 효녀의 숭고한 풍모”, “인민의 참된 충복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인민의 충복” 등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모범사례들 가운데 가장 빈도 높게 게재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에 대해 깊은 충성심을 보인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특히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 2중 로력영웅 정춘실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다.

정춘실은 1960년대 초 산골상점의 17살 처녀판매원으로 일하던 당시에 모범적 일군으로 발탁되었으며 그 후로 수 십 년을 변함없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인민들의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이신작착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혁명전

104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선녀성」(1997. 6), p. 9.

사의 자세를 보여준 충신과 효자의 전형이며 인민을 위한 참된 복무자의 본보기라고 한다.¹⁰⁵ 「조선녀성」에 비교적 자주 게재된 또 다른 사례는 김일성이 “조선혁명의 간고한 시련의 날에 나에게 힘을 주고 고무를 준 좋은 할머니”라고 하며 수 십 년 세월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회고하였다는 농촌의 한 할머니, “태성할머니”(1957년 8월에 김일성이 농촌 강서군 태성리에서 만났다는 김희숙여성)¹⁰⁶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외에도 20여 년간 가정에 지하온실을 만들어 꽃을 키워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효의 마음을 안고 400여 상의 꽃바구니를 만들어 김일성 동산에 바친 한 여맹원,¹⁰⁷ 15년 동안을 하루와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김일성 동상이 있는 만수대언덕을 찾아간 여맹의 한 초급단체위원장,¹⁰⁸ 김일성에게 80뿌리의 산삼을 꽃피워 올린 여성¹⁰⁹ 등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보인 모범 사례로 수록되어 있다.

김일성·김정일과 관련한 모범 사례와 함께 빈도 높게 게재되는 것은 인민군대 원호사업을 통해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발양한 여맹 단체와 여맹원들의 사례이다. 인민군대 원호사업과 관련한 모범사례 게재는 1990년대 후반 이래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김일성·김정일 노작, 새해공동시설 등을 시와 노래 등 예술선동식으로 공연하여 노동자, 농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의 효율성을 높이며 그들의 충성심을 강화하

105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인민의 충복: 전천군 상업관리소소장 2중로력영웅 정춘실동무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1992. 1), pp. 17-20.

106 “우리 수령님과 녀성들: 태성할머니와 그 며느리들에게 돌려주신 믿음”, 「조선녀성」 (1992. 2), pp. 15-16.

107 “꽃처럼 아름다운 녀성”, 「조선녀성」 (1999. 1), p. 26.

108 “순결한 마음을 바쳐 온 15년”, 「조선녀성」 (2002. 2), p. 26.

109 “화보: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녀성들”, 「조선녀성」 (1993. 3).

는 모범 기동예술선동대, 북한 당국이 “숨은 노력가, 녀성혁명가, …자기 개인의 안일보다도 먼저 혁명의 리익을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정신의 소유자”¹¹⁰라고 칭송하는 영예군인의 아내,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워 ‘모성영웅’의 칭호를 받은 여성, 모범축산가정 여맹원과 집짐승 기르기를 잘하는 초급단체 등도 주요 모범 사례로 잡지에 수록되고 있다.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선군정치 창도 이래 북한은 “위대한 선군혁명의 기상이 나래치는 이 땅우에는 혁명적군인가정, 총대가정이 수많이 자라나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다. …군인가정, 총대가정, 이것이 위대한 선군혁명시대인 오늘의 시대 가정의 전형이다.”¹¹¹라고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조선녀성」에는 이른바 ‘모범 총대가정’에 관한 글들이 자주 게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들, 사위, 손자 등 16명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가정, 아들 딸 8남매를 모두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가정, 세 딸 모두를 군대에 보내고 후방가족은 인민군군대 원호사업을 하는 총대가정, 아버지와 딸 넷이 군입대한 총대가정 등을 소개 선전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1990년대 말 이래 게재되는 모범 사례들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맹원들을 선도한 모범 여맹위원장들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글들은 시기적으로 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강행군’ 등과 관련되어 있다. 한 예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동맹조직사상생활에서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한 동맹원들에 대해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키고, 생활실천을 통해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득시키며 동맹조직을 조직사상적으로 건전한 집단으로 꾸리는 한편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통해 동맹원들이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나라의 부강

110 “참된 여성에 대한 생각”, 「조선녀성」 (1987. 5), p. 35.

111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우리 장군님과 총대가정”, 「조선녀성」 (2001. 1), p. 12.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 여맹위원장의 소개한 글이다.¹¹² 또 다른 예로는 생활상 애로로 인해 일부 여맹원들의 출근률이 낮고 출근해서도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편향을 나타내는 데 대해 처음에는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고 있는 때이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갈수록 심화되어 가자, 동맹원들에 대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일부 여맹원들의 편향을 극복케 했다는 초급여맹위원장을 소개한 글이다.¹¹³

위의 사례들 외에도 「조선녀성」에 수록되는 모범사례로는 철도 지원, 항건설 지원, 탄광 지원 등에 모범을 보인 여맹 단체와 여맹원, 모범 타야소 보육원, 산림조성사업을 잘 하는 여맹원, 학습을 잘하는 여맹 단체와 여맹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공장의 여성노동자들, 모범 3대혁명소조원,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 노력한 모범 협동농장관리위원장,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여성, 영예군인 노인과 지식 없는 노인을 돌보는 여맹원, 어린이교양을 잘하는 모범 여맹초급단체, 전기절약 모범가정 등이 있다. 또한 모범사례를 소개 선전한 글들 가운데는 여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20대에 학사, 박사로 명성을 떨친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연구사”, “과학원 세포 및 유전자공학분원 실장 부교수, 학사” 등 여성과학자를 소개 선전하는 글들도 적지 않다.

112 「조선녀성」 (1998. 1), pp. 29-30.

113 「조선녀성」 (2001. 2), p. 26.

5. 공산주의 도덕

1979년 1호부터 2003년 10호 현재까지의 「조선여성」에는 공산주의도덕교양을 위한 글들이 거의 매호마다 적게는 한 편, 많게는 두 세편씩 게재되고 있으며 고정 난이 편집되어 있기도 하다. 공산주의 도덕 관련 글들은 모범사례를 소개 선전함으로써 특정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교훈을 주지시키는 글과, 다양한 주제로 공산주의 도덕의 구체적 내용을 해설하는 글로 구분된다.

공산주의도덕교양을 위한 글은 대개 주제와 관련된 김일성의 “교시” 또는 김정일의 “지적”으로 시작된다. 예를 들면 자녀교양에 관한 글일 경우에 “어린이의 첫째가는 교양지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첫 교양을 잘 주는가, 못 주는가가 아이들의 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¹¹⁴라는 김일성의 교시 또는 같은 요지의 김정일의 지적으로 시작된다.

「조선여성」은 “말과 레절”, “공산주의도덕과 사회주의생활양식”, “공산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공산주의도덕과 생활”, “어머니와 자녀교양”, “어머니는 자녀들의 거울” 등의 큰 제목 아래 다양한 작은 제목들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위한 글들을 매호마다 연이어 게재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고정 난에 게재하는 것 외에도 「조선여성」에는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옷차림”, “경기장에서 지켜야 할 예의 도덕”, “레절바른 조선식인사법” 등과 같은 제목으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위한 글이 게재된다.

공산주의도덕교양과 관련해 “레절과 인품”이라는 글에서는 예로부터

114 “공산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우리 말 배우기와 어머니”, 「조선여성」 (2001. 5), p. 34.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이름이 높았는 바, 윗사람과 아랫사람, 늙은 이와 젊은이, 부녀자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 다 제정되어 있으며 조상전래로 그것을 지키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지부해 왔다고 하면서, 예절을 잘 지키는 문제가 그 사람의 정신도덕적 높이와 교양정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시대의 요구와 현실발전의 추세에 맞게 예절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¹¹⁵ 따라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위한 글들의 주제로는 “자녀교양”, “녀자들의 옷차림”, “언어례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 “주체성과 민족성 견지”, “인사례절”, “부모에게 지켜야 할 도덕”, “이웃간에 지켜야 할 례절”, “옷사람에 대한 례의”, “부부간 의리와 정”, “모교에 대한 사랑과 스승에 대한 존경” 등이 자주 등장하며, 이 외에도 식사예절, 경기장이나 열차 등과 같은 일정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 등에 관한 글들이 게재된다.

“공산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어머니와 자녀교양” 등의 고정 난에서 매우 빈도 높게 다루며 고정 난 외에서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많이 다루는 주제는 자녀교양이다. 자녀교양 관련 글들의 요지는 어머니들은 조국의 미래를 낳아 키우는 영예롭고도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 어린이들을 김정일의 훌륭한 아들 딸로 키워가자는 것, 어머니들이 자녀교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양에 대한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지적)을 깊이 학습해야 하며 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어야 한다는 것,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실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바,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와 역할이 크다는 것 등이다. 자녀교양과 관련해서는

115 「례절과 인품」, 「조선녀성」(1989. 1), p. 37.

특히 “공산주의도덕의 최고표현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인 바, 따라서 자녀들을 김정일에게 충성 다하도록 교양하는 것은 그들을 참된 인간으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근본문제이며 자녀교양을 책임진 어머니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도덕적 의리¹¹⁶라는 것을 강조한다.

자녀교양과 함께 빈도 높게 다루는 주제는 여자들의 옷차림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주의사회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입고 다닐 것을 요구하며, 특히 김정일이 인민들의 옷차림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자들의 옷차림을 주제로 한 글들의 요지는 때와 장소에 맞게 구색을 잘 맞추어 옷차림을 할 것, 검소한 옷차림을 할 것, 옷차림을 단정히 할 것 등이며, 특히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옷, 조선치마저고리를 사랑하고 즐겨 입음으로써 조선여성들의 민족적자존심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할것”¹¹⁷을 크게 강조한다.

공산주의도덕교양에 관한 글들 가운데는 언어예절에 관한 글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특히 여성의 언어예절과 관련해서는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보장하는 것은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특별히 중요한 바, 이는 여성들이 가지는 고유한 품성가운데서 많은 것이 말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며, 여성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품성은 친절하고 상냥하며 부드럽고 인정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보장하는 것이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의 우리 말배우기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어머니는 어린이의 대화

116 “공산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충성동일로 키우자”, 「조선여성」 (2002. 2), p. 27.

117 “사회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옷-조선옷”, 「조선여성」 (2001. 5), p. 35.

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언제나 문화어를 쓰며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성들의 언어예절에 관한 글들에서는 특히 여성들은 말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성적인 특성을 살려 에두름의 표현을 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 말을 항상 유순하고 친절하게 해야 할 것 등을 강조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에 관한 글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글들은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 선전하거나, 가정생활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설해 놓았다. 관련 글들의 요지는 “오늘 우리 녀성들은 지난 시기 부모를 잘 모시고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준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을 널리 계승하면서 가정에서의 생활을 보다 화목하고 다정하게 해나가고 있다”¹¹⁸는 것,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가정의 화목은 며느리에게 있다는 것,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잘 지냄으로써 “사회의 세포인 가정은 더욱 화목하고 행복할 것이며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내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화되는것”¹¹⁹이라는 것 등이다.

공산주의도덕교양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또 하나의 주제는 주체성과 민족성 견지이다. 이에 관한 글은 대개 “자기의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세울 줄 모르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참다운 애국자로 될 수 없다.”¹²⁰라는 김정일의 지적으로 시작된다. 관련 글들의

118 “옷사람에 대한 례절”, 「조선녀성」(2001. 2), p. 34.

119 “우리 며느리, 우리 어머니”, 「조선녀성」(2003. 4), p. 50.

120 “사회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우리 식 음식문화를 꽃 피우는 주인으로”, 「조선녀성」(2003. 10), p. 46.

요지는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세워야 한다는 것, 조상전래의 미풍양속과 예의도덕을 지키는 것이 자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데서 중요하다라는 것 등이다. 이는 곧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수한 민족전통과 미풍양속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속명절, 민족옷차림, 민족적 생활풍습을 비롯한 민족고유의 모든 것을 생활에 구현하고 꽃피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¹²¹

인사예절도 공산주의도덕교양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이다. 인사예절에 관한 글들에서는 때와 장소, 상대에 맞게 인사예절을 갖출 것을 강조하며, 이른바 “조선식인사법”을 권장한다. “례절바른 조선식인사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김정일이 지적하기를 “사람들이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조선절이 제일 좋다”고 하였으며, 악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인사법이 아니라 “남녀, 상하를 가림없이 불쑥불쑥 손을 내미는 서양사람들의 풍습을 반영”하고 있는 바, “우리 민족에게는 허리를 굽혀 공손히 절하는 조선식인사법이 제일 감정에 맞는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¹²²

6. 일반 상식

「조선여성」은 매호마다 일반 상식에 관한 글을 비교적 많은 편수로 다양하게 게재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래 지면 할애도 보다 더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며 특히 농·축산 및 의학·건강 관련 상식이 많아지고 있다.

121 “사회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우리의 것을 꽃피워갑시다”, 「조선여성」 (2003. 4), p. 49.

122 “례절바른 조선인사법”, 「조선여성」 (1991. 4), p. 39.

가. 농·축산 및 의학·건강상식

농·축산상식과 관련해서는 주로 콩, 옥수수, 감자, 밀 등의 주요 작물과 해바라기와 같은 기름작물에 대한 설명과 토끼, 돼지, 염소, 닭 등 집짐승 기르기, 누에치기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에 관한 상식 난에서는 주요 작물 재배 및 누에치기, 토끼 기르기 등에서 성과를 나타낸 모범 사례를 소개 선전함으로써 관련 상식을 주지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농·축산 상식 외에도 「조선여성」에는 양어 관련 상식, 각종 나무 및 나무심기 관련 상식 등에 관한 글이 자주 수록되는 편이다.

의학 및 건강상식과 관련해서는 암, 감기 등의 예방과 치료, 콩, 강냉이, 녹두 등 각종 작물을 이용한 다양한 민간요법 등에 관한 글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또한 “발을 열구지 않자면”과 같은 제목의 계절에 따른 건강 관리에 관한 글과 각종 운동 및 건강 관련 가정체육을 소개 설명한 글도 게재되며 최근에는 담배와 관련해 건강문제를 논한 글들이 이전에 비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여성」에 수록되는 의학 및 건강상식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성 관련 의학 및 건강에 관한 상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조선여성」은 “녀성과 건강”이라는 큰 제목 아래 다양한 작은 제목으로 여성관련 질병 및 예방법, 임신·출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제목으로는 “부인병과 그 치료”, “임신부들이 알아야 할 몇가지”, “습관성류산을 막는 음식료법”, “산모에게 좋은 즙쥘”, “산후 젓없이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갱년기장애와 그 증상에 대하여” 등이 있다. 또한 「조선여성」에는 유아상식 및 유아 어린이 건강에 관한 상식이 연재되고 있으며, “물에 의한 젓먹이 몸단련”, “갓난애기의 몸간수와 몸매”, “어머니젓의 영양과 젓 먹이는 방법”, “담배와 어린이건강”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나. 과학·문화예술상식

과학상식과 관련해서는 각종 발전소와 컴퓨터에 관해 소개 해설한 글들이 많은 편이며, 특히 컴퓨터에 관한 글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 현저하게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아 「조선여성」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 과학 분야의 상식에 관한 글이 적게 수록되고 있다.

문화예술상식에 관한 글은 여러 가지 주제로 다양하게 게재된다. 예를 들면 각종 국가명절과 기념일을 비롯해 한가위(추석), 음력설(구정), 수리날(단오) 등 민속명절 등에 대한 해설, 봉산탈춤 등 민속무용 소개 해설, 고려자기, 고려금속활자 등 문화재 소개 해설, 민족음식풍습 소개 해설 등이 그것이다. 또한 「조선여성」에는 각종 악기, 연주 형태 및 방법, 명곡 등을 소개 해설한 글과 효과적인 채워기 방법, 소설감상의 의의 및 방법 등을 소개 해설한 글들도 비교적 자주 수록된다. 문화예술상식에 관한 글들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편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에서는 편지의 정의, 편지의 내용, 편지의 종류 등을 밝히고, “편지는 가까운 친척사이 오가는 것이라 하여도 정치사상적내용이 있어야 하며 교양적이어야 한다. 그 어떤 편지에서도 어버이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과 혁명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기려는 높은 정신세계가 잘 표현되어야 한다.”¹²³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여성」에는 정치·경제·과학 용어를 해설하고, 지역 특산물, 명승지, 유원지 등을 소개하는 글들도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은 주제와 내용들 외에도 일반상식과 관련해 「조선여성」

123 “편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조선여성」(1998. 4), p. 40.

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 및 내용의 글들이 게재되어 있다. 먼저 주요 역사적 사건 내지 사실과 주요 역사적 인물들에 관한 글들이다. 이러한 글들에서는 임진조국전쟁(임진왜란), 갑오농민전쟁, 해주산성전투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과 단군, 연개소문, 황진이, 논개, 계월향, 신사임당, 허란설현, 한석봉의 어머니, 김응서, 광재우, 역도산 등과 같은 주요 역사적 인물들이 소개 해설되어 있다. 또한 “세계상식”이라는 난에서는 큐리부인, 로자 룩셈부르크 등을 소개 해설하고 있으며, 국가의 법질서 준수, 전기절약의 중요성과 그 방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몽성 글들도 게재된다. 그런가 하면 상식 수준을 넘어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글들도 게재되는 바, 이러한 글들은 “지식: 누에의 일생”, “력사: 고구려의 고분벽화” 등과 같은 제목으로 1~2쪽에 걸쳐 비교적 상세하게 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7. 남한 및 외국 실상

가. 남한 실상

남한 실상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이 왜곡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비난조의 글들이다. 또한 남한 관련 글들은 남한의 특정 잡지, 신문 기사를 근거로 하거나, 또는 특정지역, 특정 대학교 교수 등의 말을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엿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남한 실상에 관한 글은 2003년 10호 현재까지 거의 매호마다 게재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1990년대 말 이래 왜곡 및 비난의 강도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남한 실상과 관련해서 김대중 정권 출범 이전까지는 특히 대통령 개인과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글들이 많았으나, 김대

중 정권 출범 이후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비교적 관점에서 남한의 제도를 비판하고 남한 경제·사회의 혼란상·비참상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들이 대부분이며, 특히 남한 여성 생활의 비참상을 밝히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2002년 말 이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북·미관계가 악화된 이후로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의 글들이 빈번하게 게재되고 있다. 한 예로 2003년 5호에서는 남한에서 반미기운이 높아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가치이래 굳게 단결하고 있다.”¹²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2003년 6호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밝히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미제의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애국애족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¹²⁵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 실상 관련 글들은 남한 정권 비난, 남한 경제·사회의 비참상, ‘남조선인민’들의 김일성·김정일 숭배와 흠숭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i) 남한 정권 비난

남한 정권 비난은 주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많은 편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미제”에 의해 대통령이 된 “매국역적”이며 “파쑈독재자” 라고 매도하였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강도 높게 비난 하였는바, 집권 시작 때부터 집권 말까지 비난의 글을 연재하였다.

124 「조선여성」 (2003. 5), p. 56.

125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자주의 가치”, 「조선여성」 (2003. 6), p. 54.

남한 정권에 관한 글들에서는 특히 남한 정권이 이민, 인력수출, 해외 입양, 연수생 등의 미명아래 수많은 동족을 해외에 팔아 돈벌이를 하는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또한 당대 집권세력이 아니더라도 북한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국내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강한 비난의 글을 게재하는 바, 이는 특정당과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이다. 한 예로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특검법》을 휘둘러 정몽헌회장에게 끝끝내 비극적운명을 강요한 《한나라당》의 죄행” 운운하며 한나라당을 “친미매국당”, “미국의 앞잡이”¹²⁶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한나라당 총재는 “6.15북남공동선언을 감히 반대하면서 민족적화해와 단합과 통일을 음모, 양으로 반대하는 반민족, 반통일행위를 일삼아 온 민족의 역적, 특등매국노”¹²⁷라고 비난한다.

(ii) 남한 경제·사회의 비참상

1979년부터 1980년대에 발간된 「조선녀성」에 수록된 남한의 경제·사회상에 관한 글들은 “남조선사회는 세상에서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부패한 사회”, 또는 “남조선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대중적 기아가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다”라는 요지의 김일성 교시로 시작된다. 이 기간에 발간된 「조선녀성」에는 남한의 경제·사회 및 주민 생활 실태가 극도의 비참한 상황으로 그려져 있는 바, 남한은 “세상에서 류레를 찾아볼수 없는 인간 《생지옥》이며 처참한 《로동지옥》, …온 천지가 하나의 가시줄없는

126 「조선녀성」(2003. 10), p. 56.

127 「조선녀성」(2002. 4), p. 40.

강제로동수용소”¹²⁸라고 하였다. 또한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자식을 낳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먹여기름수 없어 남의 집 처마밑에나 길거리, 역대합실에 내다버리는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는 수만명, 서울에서만도 연간 7천명을 넘고있다.”¹²⁹라고 밝히었다. 이와 같은 남한 경제·사회의 비참상과 관련해서 「조선여성」에는 특히 남한 여성의 생활 형편이 매우 열악함을 밝히는 글들이 빈도 높게 게재되었으며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남조선여성들은 먹고 살아나가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을 버리고 있다.¹³⁰

남조선사회의 현실은 여성들의 인격적 가치를 교환가치로 전락시키고 오직 희롱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극도로 불안한 썩어빠진 사회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¹³¹

남조선에서 여성들이 나라의 정치에 참가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없는 일이며 ...경상북도 대구시의 한 기업주놈은 밀린 임금을 달리는 여성로동자들에게 펼 펼 끓는 물을 들썩워 그중 한명이 숨지게 했으며...¹³²

128 「조선여성」 (1979. 2), p. 50.

129 「조선여성」 (1982. 2), p. 52.

130 「조선여성」 (1993. 5), p. 32.

131 「조선여성」 (2002. 1), p. 40.

132 「조선여성」 (1982. 3), p. 51.

남조선피뢰도당의 매국매족행위로 말미암아 1962년부터 1985년 5월말 현재까지 55만 3,400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이 《이민》의 명목밑에 외국에 팔려갔다. 1983년말현재 미국, 캐나다, 서부독일, 일본 등 66개 나라에 팔려간 간호원수만도 1만2,000여명이나 된다.¹³³

위의 예문들 외에도 1979년과 1980년대에 발간된 「조선녀성」에는 특히 나이 어린 소녀가장,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는 여성, 생활고에 치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돈이 없어 대학에서 쫓겨난 여대생 등에 관한 ‘실화’와 정치적·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인간 이하의 모멸과 학대를 당하는 여성 등에 관한 ‘실화’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1990년대 이래 「조선녀성」에는 남한의 경제 상황보다 사회 실태를 ‘폭로’하는 글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역시 “남조선 여성의 비참한 처지”를 밝히고 이를 개탄하는 내용의 글들이 대부분이다. 한 예로 1998년에 발간된 잡지에서도,

남조선녀성들은 사회적인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월간잡지는 녀성들의 비참한 처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썼다. 《남조선은 남녀차별, 녀성경시, 녀성천대의 세계적교실이다.》 …남조선녀성들은 남자들도 꺼려하는 용접 등 로동강도가 높은 직업장들에서 남자들과 똑같은 시간의 가혹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지만 남성로동자임금의 3분의1, 지어 5분의1도 안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임신 및 해산과 관련한 사회보장이 전혀 없어 남조선녀성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수 없이 크다. …남조선의 <

133 「조선녀성」 (1985. 5), p. 42.

한겨레》신문은 《태여날 때부터 버림을 받고있으며 아이낳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이남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처지》¹³⁴

라고 개탄하였다.

또한 「조선여성」에 실린 글들에서는 “남조선 여성의 비참한 처지”를 미국의 탓으로도 비난하는 바,

남조선에서 근로인민들일반이 그러하지만 특히 여성들은 사회적인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여성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 강간과 수탈, 불행과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다. ...백주에 주민가옥에 뛰여 들어 유부녀를 번갈아 릉욕하고는 목졸라 죽이고 그 《기념》으로 한쪽 눈알을 뽑아 간 미제승냥이놈들, ...남조선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불행, 재난은 결코 숙명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썩고 병든 남조선 암흑땅에서 여성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처럼 잡아 죽이며 멸시하는 미제침략군과 사대매국노들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¹³⁵

라고 한다.

위의 내용들 외에도 「조선여성」에는 여성인신매매, 강제매춘 등의 사건을 소개하며 “남조선 여성의 비참한 처지”를 밝히는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134 “사회악이 빚어낸 여성들의 운명”, 「조선여성」 (1998. 1), p. 40.

135 “여성인 탓에”, 「조선여성」 (2000. 3), p. 39.

(iii) “남조선 인민”들의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숭배와 흠승

생활고에 시달리는 “남조선 인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그리워하며 숭배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들은 ‘구체적인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한 예로 1978년 4월 15일 아침에 호남지방에서 있었다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사스러운 이날을 맞는 남녘 인민들은 옷깃여미며 아버지 수령님의 만년장수를 삼가 축원하였다. 바로 그 아침 호남지방사람들의 가슴은 크나큰 기쁨과 걱정으로 끓어올랐다. 호남선을 따라 달리는 련차꼭대기에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만세!>>라고 쓴 붉은 기폭이 4월의 봄바람에 펄럭이고 수천매의 빠라가 뿌려졌던 것이다. <<각계각층 애국민중 여러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통일조국의 수반으로 모시고 그분의 치하에 행복을 누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일어나 싸웁시다. 우리모두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아버지로 모신 그분의 충실한 아들이 됩시다! (향일회)>>...136

또 다른 예로는, 1979년 6월 경기도 안양에 홍수가 나 안양천이 범람하여 한 여인이 물에 빠졌는데, 이 여인은 물에 빠져서도 가슴에 품고 있는 무언가를 물에 적시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사람들이 물에서 건져낸 후 보았더니 비단천으로 싸고 기름종이로 싸고 또 싸 김일성의 사진이었다. 또한 그의 딸은 초상화를 안은 어머니를 지붕위로 밀어올리고는 물에 잠기

136 “태양의 아들이 되여라: 남조선의 지하혁명조직 <<해바라기회>>의 한 성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조선여성」 (1979. 4), pp.24-25.

고 말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김일성장군님의 영상을 뵈겠다고 서로 앞으로 나섰다, 김일성장군님을 연호하며 감격해했다.”¹³⁷

라는 내용의 글이다.

김정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숭배와 흠숭”에 관한 글은 김일성 사후에 많이 게재되는 편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뜻깊은 2월이 오면 남녘의 민심은 위대한 향도의 태양을 받들어올린 마음의 고향 백두산으로 달리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계절에 앞서 피워기는 남녘의 민심은 또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 …서울의 대학생들은 온 남녘땅을 김정일화회원으로 가꾸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몸바칠 것을 맹세하고 역세게 싸우고 있다.¹³⁸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매혹되어 찬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에서 있는 《민족의 총대》라는 주체의 시국강연에서 민족문제연구소 김진호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 이남민중이 미국의 예속민으로 치욕을 당하면서도 가슴 펴고 살아기는 것은 북에 내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 주고 존엄을 높여 주는 막강한 선군정치가 있기 때문이다.¹³⁹

137 「조선녀성」 (1980. 1), pp. 25-26.

138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 2월에 사는 남녘겨레”, 「조선녀성」 (1996. 1), p. 18.

139 “남녘의 민심”, 「조선녀성」 (2003. 6), p. 54.

나. 외국 실상

「조선녀성」에 수록되는 외국 실상 관련 글들의 대부분은 일본과 미국의 실상에 관한 것이며 그 내용은 일본과 미국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되어 있다. 반면에 “빨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글들은 긍정적·우호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게재되는 빈도가 낮다.

「조선녀성」에는 일본 실상과 관련해 부정적이며 비난일변도의 글들이 거의 매호마다 연이어 게재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 노동자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본 여성들 역시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 대동아공영권 실현을 위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경제침투’와 “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 야망” 등 과거 일본군국주의의 만행과 최근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의도 등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 일본의 과거청산을 촉구하는 것, “미제”와의 결탁 행위를 비난하는 것 등이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조선녀성」에는 특히 ‘중군위안부’문제 및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는 글들이 자주 게재되는 편이다. 예를 들면, 중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선옥이 쓴 실존 중군위안부의 수기가 3회에 걸쳐 연재되었으며,¹⁴⁰ 2000년 12월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일본중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도쿄 국제여성전범법정’에 관한 글도 게재된 바 있다.¹⁴¹ 또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미추종이 체질화된” 일본이 미국과 결탁해 “미제의 앞잡이”로서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140 “런재수가: 만천하에 고발한다”, 「조선녀성」(2001. 5~7) 참조

141 “일본 도쿄 <<국제여성전범법정>>”, 「조선녀성」(2001. 3), p. 39.

비난한다.

미국의 실상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이며 비난일변도의 글들이 매호마다 연이어 게재되고 있으며 일본에 비해 지면 할애도 많은 편이다. 미국의 실상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글 외에도 한국전쟁 당시의 “미제의 만행”을 주제로 한 그림, 또는 “미제 타도”를 선동하는 선전화를 게재한다.

미국의 실상에 관한 글들은 주로 미국 사회의 부패와 혼란상, 비참한 생활상 등을 밝히는 내용과 한국전쟁 당시의 “미제”의 만행, 남한·일본과의 결탁, 최근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처사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미국 사회의 부패와 혼란상, 비참한 생활상에 관한 글들에서는 특히 미국의 어린이와 여성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밝히는 바,

돈이 모든 것을 휘두르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은 피어나기도 전에 시들어버리고 만다. 태어나자마자 죽어간다. …미국은 자본주의나라들 중에서 어린이 사망률이 제일 높다. …미국의 거리에는 어린 방랑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 어지럽고 남루한 옷차림, 방랑생활을 하면서 얻어맞은 얼굴에 난 깊은 상처자리, 생기없는 눈에 고인 눈물 …이렇게 버림받은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있는 것이 오늘의 미국이다.¹⁴²

라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미제”의 만행에 관한 글들은 주로 여성의 체험담 형식으로 게재되며, 다른 글들에 비해 매우 원색적이고도 사실적인 묘사를 하

142 “시들어가는 꽃망울들: 자본주의나라 어린이들의 비참한 처지”, 「조선녀성」 (1987. 3), p. 38.

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 예로 한국전쟁 당시에 “미제”의 만행을 체험했다는 한 여성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미제원쑤”들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여섯 달된 아들의 귀밑에 칼을 박고 두 손가락을 잘랐는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은 한하늘을 이고 같이 살수 없는 잔인한 살인마, 악마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다.¹⁴³ 한국전쟁 당시 “미제”의 만행을 비난하는 글들에서 미국은 “력사상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략탈자, 침략자, 식인종”, “침략과 전쟁의 흉악한 원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등으로 매도된다. “미제”의 남한과의 결탁을 비난하는 글들은 주로 “북침을 노리는 위험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¹⁴⁴에 관한 것이었으며, 특히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미제야말로 광주학살원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¹⁴⁵ “미제”의 일본과의 결탁을 비난하는 글에서는 “미제”가 남조선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또한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발생, 심화된 이래 「조선녀성」에는 거의 매호마다 미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연이어 게재되고 있으며, 관련 글들에서는 미국을 “악의 제국”, 또는 “불량배국가”라고 강하게 비난한다.

최근 미국은 우리에게대한 핵선제공격을 공공연히 떠들어대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어로 몰아 가고 있다. ...사태가 보여 주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의 신물이다.¹⁴⁶

143 「조선녀성」 (1998. 1), p. 35.

144 「조선녀성」 (1988. 3), p. 37.

145 「조선녀성」 (2003. 5), p. 55.

146 “미국의 오만무례한 처사”, 「조선녀성」 (2003. 3), p. 55.

미제는 우리 나라를 둘로 갈라 놓은 장본인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악랄하게 방해하고 있는 북남공동의 원썩¹⁴⁷

147 “무지몽매한 나라”, 「조선녀성」 (2003. 5), p. 56.

V. 「조선녀성」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

1. 시기별 변화 양상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논문은 2003년 12월 현재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1979년 1호부터 2003년 10호까지의 「조선녀성」만을 분석하였으므로 1946년 9월의 창간호부터 2003년 10호 현재까지의 「조선녀성」 전 호에 걸쳐 나타나는 시기별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없음이 분석의 한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1979년 1호부터 2003년 10호까지의 「조선녀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기별 변화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양상들은 그 나름대로 의의를 지니고 있다.

(i) 1980년 10월 후계자 김정일의 공식화를 전후해 김정일의 업적과 위대성을 찬양하고 이상화하는 글이 급증하였다.

한 예로, 제4장 ‘주제별 내용분석’에서 밝혔듯이 「조선녀성」 1979년 2호의 표지 2면에는 김정일이 1960년에 지었다고 하는 가사 “조선아, 너를 빛내리”가 수록 되었는데, 이 가사는 김정일이 이미 청소년 시기에 자신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대를 이어 혁명위업을 계승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아 빛내리”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녀성」에 수록되어 있다.

해 솟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 강산이 가슴에 안겨 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계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1980년 1호부터는 김정일을 뜻하는 “당중앙”의 은덕과 배려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와 글들이 점차 많아진다. 예를 들면 1980년 2호 표지 2면에는 당중앙을 찬양하며 당중앙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시 “위대한 당을 생각할 때”가 수록되어 있으며, 1980년 2호부터는 김정일을 뜻하는 “향도의 해발아래”라는 큰 제목 아래 여러 가지의 작은 제목으로 김정일의 은덕과 배려에 감사하는 글들이 연이어 게재된다.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1980년 10월에 특간호로 발간된 「조선녀성」에는 당의 위대성 및 업적 찬양과 함께 ‘향도의 별’ 찬양의 글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게재되어 있다.

위에서와 같이 후계자 김정일의 공식화 이후로 그의 업적 및 위대성을 찬양하는 글들이 현저하게 많아진 것과 함께 「조선녀성」에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이전과 달리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그림이 비교적 자주 수록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가 사업을 토의하는 사진, 함께 삼지연의 새벽길을 걷는 그림, 함께 현지지도에 나선 사진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화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사진제목의 설명에서 김정일을 더 부각시키는 바, 예를 들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창광원을 돌아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외국방문성과를 축하하여 뜨거운 인사를 올리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빙상관을 돌아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후계자 김정일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녀성」의 또 다른 변화 양상은 이른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신 말씀”을 김일성의 교시와 마찬가지로 잡지의 맨 앞에 수록하는가 하면, 같은 호의 잡지에서 같은 주제에 대한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을 앞뒤 면에 수록하는 편집방식이다. 예를 들면 「조선녀성」 1989년 3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문화정서생활기품을 세울데 대하여 하신 교시(발취)”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화정서생활기품을 세울데 대하여 하신 말씀(발취)”이 앞 뒤 면에 함께 게재되어 있다.

위의 내용들 외에도 1987년 1호에는 집무 탁자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김정일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으며,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오른 1992년 1호에는 화보를 포함해 김정일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내용의 글들

이 총 40쪽 가운데 약 35쪽에 걸쳐 게재되었다.

(ii) 후계자 김정일의 공식화를 전후해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을 찬양, 우상화하는 글이 급증하였다.

「조선여성」에 김정숙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글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후계자 김정일의 공식화와 함께 그에 대한 찬양 및 우상화가 본격화 되는 시기와 때를 같이 한다. 한 예로 「조선여성」 1980년 1호부터는 “불멸의 생애, 빛나는 구감”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숙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내용의 글들이 2쪽 정도의 분량으로 연이어 게재된다. 그리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 이후로는 김정숙 관련 글이 현저하게 많아졌으며, 특히 김정숙의 생일(12.24)이 있는 12월에 발간되는 「조선여성」은 지면 할애가 평균 6~8쪽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호를 거듭할수록 그 정도를 더 하였으며 1987년에는 김정숙의 생일이 있는 「조선여성」 6호에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70돐을 맞으며”라는 큰 제목 아래 여러 가지의 작은 제목들로 김정숙을 찬양하는 글들이 26쪽에 걸쳐 게재되기에 이른다. 1980년대에도 「조선여성」에는 강반석을 찬양하는 글들이 꾸준히 게재되기는 하였으나 김정숙 관련 글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바, 강반석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발간되는 호에서 대개 두 쪽 정도로 게재되며 그 내용도 ‘반일부녀회’와 관련된 것들에 불과하다.

(iii) 구소련 해체 및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및 사회주의 고수 의지 강화를 위한 글들이 현저하게 많아졌으며 지속적으로 연재되었다.

이와 관련된 글들은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해설 선전 또는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외부사회의 찬사와 “자본주의가 복귀된” 구소련 및 동구라과 국가들의 비참한 실태를 폭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외부사회의 찬사를 내용으로 하는 글들은 “세계 진보적사회계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가리켜 《가장 우월하고 독특한 사회주의》, 《조선의 사회주의는 인류의 리상향이 실현된 민중중심의 사회주의》, 《세계인민들에게 신심을 안겨주는 희망의 등대》라고 하면서 높이 칭송하고 있다”¹⁴⁸라는 요지를 담고 있으며 잡지에는 구체적 사례로 덴마크, 탄자니아, 인도, 오스트리아, 페루 등 각지에서 찬사를 보내고 있음을 소개 선전하는 글을 게재한다. 또한 과거 사회주의 권이었던 동구라과 국가들의 비참한 실태를 밝히는 글들은 특히 동구라과 국가들에서 시장경제도입 후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과 임신부들의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밝히는 글들이 많다. 한 예로 “자본주의가 복귀된 동구라과나라”여성들은 다른 나라에 팔려가 창녀생활을 강요당하는 바,

독일에 있는 매춘부 가운데서 5만명은 체스꼬, 슬로벤스꼬, 벨스까, 독립 국가협동체 나라 처녀들이다. 독일에서 벌어지는 《인육장사》 대상의 80%는 이런 나라들에서 값죽은 처녀들이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남성과 같이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행사했던 동구라과나라 여성들이 오늘은 남자들의 노리개로 되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의하여 빚어진 자본주의복귀가 가져다줄것이란 오직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¹⁴⁹

148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조선식 사회주의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 「조선여성」 (1991. 5), p. 25.

라고 한다.

(iv) 남북관계 개선 시기에는 남한을 비난하는 글들이 현저하게 적어지며 비난의 강도도 크게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 예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및 발효에 즈음한 1992년 2호에는 대남 비난의 글이 없으며, 특히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래 대남비난의 글이 눈에 띄게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도 크게 약화되었다.

2. 내용상의 특징

(i) 글쓴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조선녀성」에 수록된 사상, 과학 및 문화예술 등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글은 대체적으로 글쓴이의 소속 및 이름을 밝히는 편이다. 예를 들면 “향도의 해발아래, 은혜로운 손길아래 태어난 무용 《손북춤》”이라는 제목의 글은 글쓴이가 ‘평양모란봉예술단 안무가 김해춘’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글쓴이를 명기하는 글들은 많지 않다.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은덕과 배려에 대한 감사, 김일성에 대한 회고, 여맹활동 및 모범사례 등에 관한 글도 대체적으로는 글쓴이를 밝히는 편이지만 ‘본사기자’, ‘로농통신원’, 또는 ‘개성시 000’ 등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조선녀성」에 수록된 글쓴이를 명기하지 않은 글들은 대개가 ‘본사기자’로 되어 있으며 이에 글쓴이가 없이 게재되는 글들도 많다.

김일성·김정일 찬양, 사회주의제도 찬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들 가운데 외국인의 이름으로 게재한 것들은 글쓴이를 다양한 형식으로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가나가와대학 명예교수 미야기와 다께오’, ‘인도 간뿌 르종합대학산하 마차라 나렌데로 데오대학 학장 싸로즈 타네자’ 등과 같이 글쓴이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기도 하지만, 많은 글들은 다음과 같이 불명확하게 글쓴이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위스 작꼬’, ‘알리 모하메드 이따야’ 등과 같이 이름만 밝히거나, 또는 ‘킨와씨 에드문드(탄자니아)’, ‘마후무드씨이드(민주예멘)’ 등과 같이 이름과 국명만을 밝히거나, ‘필지는 짐바브웨사람’, ‘통일혁명당 여성당원이 옥중에서 쓴 시’ 등과 같이 소속도 이름도 모호하게 한다. 글쓴이의 소속과 이름이 불명확한 글은 특히 김정일을 찬양한 외국인의 시와 글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김정일 찬양문구를 소개한 다음에 “마다카스카르신문 《이몽구 바우바우》는 이렇게 지적하였다.”라고 한다든가 “인도의 한 문필가는 이렇게 말했다.” 등이 그것이다.

(ii) 김일성·김정일의 업적 및 위대성을 찬양한 글들은 북한문학의 ‘수령형상창조’의 원칙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북한문학의 ‘수령형상창조’란 수령의 존재를 ‘수령형상 작품에 고유한 생리’에 따라 잘 형상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생리’란 작품 창작에 있어 지켜야 할 원리 내지 원칙을 뜻한다.¹⁵⁰ ‘수령형상창조’의 원칙에 의하면 문학작품 창작에 있어서는 사상이론가, 정치가, 전략가, 영도의 예술가

150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26-151 참조

로서의 수령의 위대성과 수령이 지닌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을 형상해야 한다. 또한 특히 후계자 김정일을 수령 김일성과의 관계 속에서 형상해야 하는 바, 이는 한 작품에서 두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¹ 「조선녀성」에 수록된 김일성·김정일의 업적 및 위대성을 찬양한 글들은 위와 같은 ‘수령형상창조’의 원칙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인간적 풍모에 관한 글들에 소개된 다양한 일화들은 수령을 형상한 문학작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iii) 같은 내용의 글이 반복적으로 게재되기도 한다.

「조선녀성」에 반복적으로 게재되는 유사한 내용 내지 동일한 내용의 글은 특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등의 이른바 ‘위대한 인간적 풍모’를 말해 주는 일화들이다. 한 예로 김정일이 “처녀해안포병들의 살결이 거칠어 질가 염려되어 약크림을 보내주는 자상함”¹⁵²을 보였다는 한 일화는 1996년 2호에 게재된 바 있으나 2003년 3호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¹⁵³

151 최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국업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 「조선문학」(1998. 9), p. 20.

152 「조선녀성」(1996. 2), p. 28.

153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여성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조선녀성」(2003. 3), p. 10-11.

(iv) 국내외 주요 시사를 전달하고 해설하는 글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조선녀성」은 국내외의 주요 시사를 제 때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경우에도 대개는 짧은 글의 사실보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1993년 3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으나 「조선녀성」은 당해년 2호에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공식문건만 두 쪽에 걸쳐 게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해설이나 문제의 심각성을 논한 글은 전혀 게재하지 않았다. 또한 2000년 6월 남북정상 회담과 관련해서도 당해년 4호에 “북남공동선언문”만을 게재했을 뿐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에 관해 해설한 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995년 중반 이래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됨에 따라 대량 아사사태가 발생했으나 「조선녀성」에는 식량난 또는 아사사태에 관한 글이 게재된 바 없으며, 다만 ‘고난의 행군’ 기간(1995~1997)에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며”라는 큰 제목 아래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고, 김정일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충신, 효녀들을 소개 선전하는 글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난의 행군정신’ 함양 및 투쟁을 독려하는 글들을 게재하였을 뿐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사회주의 결사수호전이며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부딪친 난관과 시련을 뚫고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고난의 행군》은 말 그대로 어렵고 시련에 찬 행군이다. …우리 인민은 하늘처럼 믿고 살던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대국상을 당했다. 여기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군사적으로 압살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몇해째 연방 자연피해를 입었다. 심한 우박과 큰 물 피해에 이어 갑자기 들이닥친 무더기 비와 큰물 피해로 알곡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올해엔 해일피해까지 겹쳐들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고난의 행군》의 최후승리를 향해 더욱 기세차게 내딛고 있다.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 때문이다.”¹⁵⁴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무한히 고무되어 수해지역 인민들은 장군님만 계시면 그 어떤 난관도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락관에 넘쳐 힘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우리 인민들은 이번의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장군님이 제일이시고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그 어떤 자연의 광란도 대적도 두렵지 않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였다.¹⁵⁵

그러나 예외적으로 2002년 ‘남북여성통일대회’에 관해서는 “금강산에 차넘친 북남녀성들의 통일열망: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열린 역사적인 북남녀성통일대회를 보고”라는 제목 아래 대회의 의의 및 중요성, 대회장 분위기, 행사내용 및 진행과정, 대회 참가자 및 주요 발표내용 소개 등을 담은 글이 두 쪽에 걸쳐 게재된 바 있다.¹⁵⁶

154 「조선녀성」 (1997. 6), p. 8.

155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 사랑의 힘으로 밀어제긴 자연의 대광란”, 「조선녀성」 (1997. 1), p. 14.

(v) 글의 제목과 소재만 다를 뿐 거의 모든 내용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 및 위대성 찬양, 그들에 대한 충성 다짐으로 일관되어 있다.

특히 모범 여맹조직 활동 및 모범 여맹원 사례에 관한 글들의 내용은 당과 수령의 뜻 관철,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덕과 배려에 대한 감사와 칭송, 충실성 강화 다짐 등으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등에 대한 방문기도 사회주의제도에 사는 행복과 기쁨, 당과 수령에 대한 감사와 충실성 다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기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출판보도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당적출판보도물로서의 녀성출판물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우리 녀성출판물이 녀성 대중의 참다운 교양자가 되도록 할것이다.”¹⁵⁷라고 하는 「조선녀성」 발간 의 의의를 적극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vi) 북한에서 유일한 여성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녀성」에는 여성 관련 정책 및 방침에 대한 해설 선전 기사가 거의 없는 편이며, 여성의 권리침해 내지 권익신장 문제 등과 같은 여성문제에 관한 글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56 「조선녀성」 (2002. 12), pp. 31-32.

157 「조선녀성」 (1996. 5), p. 21.

(vii) 재일여맹에 관한 글이 매우 드물게 게재되는 편이며 최근에는 거의 수록되지 않고 있다.

재일여맹 관련 글은 조선초급학교 교원, 성인학교 강사 등 “모범 동포 여성”에 관한 글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일여맹을 소개하는 글이 몇 편 게재되었을 뿐이다.

재일녀맹은 전체 재일동포여성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수령님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민족권리를 옹호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싸워왔으며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인민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련의 애국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왔다. 창립 40돐을 맞는 재일녀맹조직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해외여성조직으로, 총련애국운동을 믿음직하게 밀고나가는 위력한 조직으로 강화발전하였다. 재일녀맹조직은 오늘도 재일여성들속에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총련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다.¹⁵⁸

또한 1995년 3호에서는 총련 결성 직후부터의 재일여맹의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재일조선여성들이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안겨준 주체의 신념과 애국애족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⁵⁹

158 「조선여성」 (1987. 5), p. 35.

159 「조선여성」 (1995. 3), p. 36; 2003년 10월 일본에서 면담한 재일여맹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일여맹은 북한여맹으로부터 활동지침이나 재정지원을 받지

(viii) 「조선녀성」에 수록되는 문예작품은 그 편수가 매우 적으며 작품의 주제와 내용도 거의 유사하다.

잡지에 수록되는 문예작품은 대체적으로 단편소설 한 편과 가요 한 곡, 그림 한 장이 실리는 정도이며 때로 시가 한 편씩 수록되기도 한다. 단편소설은 주로 김일성을 형상한 작품들이며 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등을 찬양한 작품들이다. 표지 2면에 수록되는 가요는 주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찬양과 충성 다짐, 당의 위대성 및 업적 찬양, 혁명정신 고양 및 조국애 함양, 사회주의제도 찬양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않고 북한 여맹과 동등한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조직을 관리 운영해 나가며 활동 내용에 있어서도 북한여맹과는 다르다고 한다. 또한 재일여맹 관계자들은 재일여맹이 북한여맹과 공식적인 교류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며 재일여맹이 발간하는 기관지 「조선녀성」은 북한여맹의 기관지 「조선녀성」과 발간 취지 및 목적, 내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북한여맹과의 차별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VI. 결론

「조선녀성」은 북한에서 유일한 여성잡지이다. 그러나 「조선녀성」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잡지와는 그 내용에 있어 매우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의 눈에 익은 여성잡지들에는 여성 특유의 감성을 자극하는 흥미롭고도 이색적인 다양한 주제의 글과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때로는 여성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는 내용의 글이 수록되기도 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눈에 익은 여성잡지들은 말 그대로 여성만을 위한 잡지로서의 특성과 기능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은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의 여성잡지인 「조선녀성」에는 여성 특유의 감성을 자극하는 글, 또는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용의 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조선녀성」에 수록된 글들의 대부분은 사상교양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제목만 다를 뿐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 및 위대성을 찬양하고 두 사람에 대한 충실성을 다짐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녀성」은 일반적인 여성잡지라기보다는 ‘대중정치잡지’로서의 특성 및 기능을 지닌 여맹의 기관잡지라고 하는 편이 보다 더 적절할 것이다. 사실상 북한 문헌에서도 「조선녀성」을 여성잡지로 명기하지 않고 대중정치잡지의 성격을 지닌 여맹의 기관지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녀성」이 여맹원들을 비롯하여 전체 여성들을 독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잡지는 여성잡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제와 내용을 논외로 한다면 「조선녀성」에는 여맹조직 활동과 모범 여맹원들의 사례를 소개 선전하는 등 여성 관련 글들이 적지 않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인간

적 풍모를 찬양하는 글들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일화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조선녀성」은 어머니의 자녀교양을 비롯해 여성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 등에 관한 글, 여성 및 육아 관련 의학·건강상식에 관한 글, 여성의 언어예절에 관한 글 등을 비중 있게 수록함으로써 여성들에 대한 계몽 내지 문화교양서로서의 기능을 하며 이로써 다른 잡지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요약하건대 제2장에서 밝혔듯이 「조선녀성」은 북한의 모든 출판보도물들과 마찬가지로 “광범한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노동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 여맹원들을 비롯해 북한의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서로서 주로 기능한다. 그리고 매우 미흡한 정도이나 주요 독자대상인 여성들에 대한 계몽 내지 문화교양서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북한 여성들 사이에 「조선녀성」이 널리 보급되지 않는 실태라고 하므로 북한 여성들에게 있어 「조선녀성」 발간의 의의 및 취지가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1」.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_____, 「백과전서4」.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 근로단체출판사. 「조선여성」. 제1호~12호, 1979.
 _____, 「조선여성」. 전호, 1980~2002.
 _____, 「조선여성」. 제1호~10호, 2003.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당대표사회결정관철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 및 기자. 편집원들과 한 담화 1966년 10월 28일 「김정일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전국당근로단체사업부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5년 4월 30일 「김정일선집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3」.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_____, 「조선대백과사전1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평양: 문예출판사, 1991.
- 장형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형상에서 거둔 혁신적 성과.” 「조선문학」. 제3호, 1998.
- 최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국업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 원천” 「조선문학」. 제9호, 1998.
- 한재만. 「김정일: 인간 사상. 령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4.